

오서산 주변의민속

저자 김 정 현

2002



호성문화원

오서산 주변의 민속

저자 김 정 현

Contents

※ 화보

제1장 개관

- 1.지명의 유래 | 11
- 2.오서산의 지리적 배경 | 11
- 3.오서산의 역사·문화적 배경 | 11

제2장 오서산의 사찰

- 1.정암사 | 13
- 2.내원사 | 22

제3장 오서산의 민속

- 1.민간신앙
 - 1)백제 부흥군 위령제 | 27
 - 2)느티나무제 | 29
 - 3)산제 | 33
- 2.전설
 - 1)고륜바위 | 35
 - 2)아차산 | 39
 - 3)처녀바위 | 42
 - 4)용티의 무덤 | 45
 - 5)최치원의 아들과 딸이 쌓았다는 석상산성과 학성산성 | 48
 - 6)수박구덩이 | 50

제4장 오서산의 충·효·열

- 1.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나고 | 55

제5장 오서산 일대에 흩어진 주류성의 흔적들

- 1.산성
 - 1)석상산성 | 59
- 2.전설
 - 1)상여바위 | 68
 - 2)흰질바위 | 71

제6장 사진으로 본 오서산의 이모저모

- 1.오서산 정상에의 역사 | 75
- 2.오서산 정상에의 모습들 | 77
- 3.오서산 광성리 청정계곡 | 80

※ 참고문헌 | 81



오서산
주변의민속 2002

화 보







제1장 개관



제1장 개 관

1. 지명의 유래

오서산은 옛날부터 까마귀와 까치가 많이 살았다고 한다.

까마귀(烏)가 보금자리(棲)를 이루고 사는 산(山)이라는 뜻으로 오서산(烏棲山)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2. 오서산의 지리적 배경

오서산은 홍성군 광천읍과 장곡면 그리고 보령시와 청양군의 3개 시·군이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이다. 또한 오서산은 해발 790.9m로써 충남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이다. 광천읍에서 4km정도 떨어져 있고, 정상의 억새밭이 유명하여 등산 코스로도 인기가 높은 산이다.

3. 오서산의 역사·문화적 배경

오서산은 옛날부터 천수만 일대를 항해하는 배들에게 나침반 혹은 등대 구실을 하던 산이기도 하다. 그래서 붙은 이름이 “서해의 등대산” 이기도 하다.

오서산 정상을 중심으로 약 2km의 주능선은 온통 억새밭이어서 가을 산행의 명소이기도 하다. 가을 김장철에는 광천 새우젓을 구입할 겸, 오서산의 억새를 구경하기 위해 찾아오는 등산객들이 많이 붐빈다. 장곡면 광성리 계곡은 충청남도에서 청정계곡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여름 피서객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또한 오서산 정상에서 바라보면 서해의 수평선과 잠자는 듯 편안하게 늘어선 섬들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더해준다.

제2장 오서산의 사찰

제2장 오서산의 사찰

1. 정암사

홍성군 광천읍 담산리 오서산 중턱에 있는 사찰로 일명 정암사(正庵寺)라고도 한다. 광천읍에서 담산리 상담마을 위쪽에 위치해 있다. 상담마을에 설치한 주차장에서 한시간쯤 올라가면 중턱쯤에 위치해 있다.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고려 때 창건하였고 대운대사(大雲大師)가 중수하였다고 한다. 주요 건물로는 다음과 같다.

- (1) 대웅전 : 건축연대는 서기 527년이고 개축연대는 1977년이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기와 지붕이다.
- (2) 요사채 : 정면 4칸, 측면 2칸 64평의 팔작기와 지붕이다.
- (3) 불상 : 이미타불, 관음보살, 지장보살 3좌가 봉안되어 있다.
- (4) 종각 : 범종루(梵鐘樓) 4평 2층으로 되어 있다.
- (5) 산신각 : 1칸
- (6) 심검당(尋劍堂) : 정면 4칸, 측면 3칸 맞배 기와지붕으로 되어 있다.
- (7) 공양간 : 9칸 15평으로 되어 있다.
- (8) 정암사 약지(略誌)

佛紀元八九年現在
西紀元六二

淨巖寺藏

淨巖寺略誌

淨巖寺略誌

渤海之東이오本州之西이山이있
은이곧鳥棲山이라

距今一千四百三十六年(西紀五二七)
百濟第二十六代聖王三年三月三日
에沙門斯致和尚이諸方에遊歷教
化하다가鳥棲山에이르러山勢를觀
察하니亦壯亦秀하야後로七峰巖

이數千丈이오山은五七西通襄里하
야重重別景이恰似食床이在前이라
所謂萬代不廢之地라題曰青山疊々
天然色이오溪水潺々我本志라하시고
이곳에創寺의 뜻을聖王께告하니王
이快히應諾하시고斯致和尚에게大作
佛事하야廣度迷倫하라하시며國財로
寺刹을創建하니大雄殿、極樂殿、冥
府殿、그리고諸寮舍를合하여拾餘棟
을建立하고鳥栖淨巖上에棲하七格이
라寺名을淨岩으로稱하고釋尊像을비
롯하여三十餘聖像을木造로造成하
여奉安하니奇峰은聳出이오萬壑은
幽深이라淸淨道場에殿宇宏傑하
야山下에楸比하니後峰上腹에有爐
殿하야大鍾을打則山下諸堂에서一時

이타鍾하고佛殿에諸法規를一齊히舉行
하야名門大家에서三寶에齊供함
이四時에不絶하야僧徒가百餘名이라佛
法昌盛함이不過於此時라其後二十七
年에聖王께서斯致和尚과怒喇和尚에게
命하시佛法을廣布하야濟度衆生함
이我本意라和尚等은銘心不忘하야
하고聖王三十年十一月에金銅佛像과
經을日本에 보내어曰이法이諸法中에서
가장殊勝하야周公孔子도오히려能知
지못한바라能히無量한福德을生하야
無上한菩提를成辦한다하야時之日本欽
明天皇十三年이라日本에佛教流布됨이
이것이始初이다
距今一千三十六年(西紀九二七)新羅第
四十九代憲康王時에無染國師(俗姓은

金氏)는新羅第二十九代武烈王八世孫)가九
歲에出家하야浮石山釋澄大德에게華
嚴經을修學하고入唐하야道를如滿에
게問하야心印을得하고敎來하야熊川
聖住寺外統餘無量寺에居住하시다가
本寺에來하시大重修를하시錦上添
筆末年에聖住寺에居住하시다가入
寂하시享年이八十九歲라謚號를大
朗慧라하고塔號를白月葆光이라하
다
距今七百二十八年(西紀一三三五)高麗第
二十三代高宗十九年壬辰에蒙古兵이
大舉侵入하야金寺刹을焚燒하야當
時慶州大刹皇龍寺를이러하야三十餘
大刹이燒盡되었고國寶八萬大藏經板
도全燒하였다當時百餘名僧徒가敬之
四方하고其中에三名의僧이阿彌陀佛像과

觀世音菩薩像及地藏菩薩像等各一尊是
此外並有後峰의가 외二日二夜를隱身
하고있다가燒盡時에佛像을모시고歸寺
하여三尊像을모시고晝宵로痛哭하니
目不忍見이있다其後高宗께서仔細한
實情을아시고八萬大藏經板役事를마
치고當時八萬大藏經板佛事에校正하시
고普照國師를特命하시本寺全部를
復舊하시初創과조금다름이있었다國
師의名은知訥이호字는牧牛子니瑞興
人이호姓은趙氏다八歲에出家하시二十
五歲에僧徒을受하고六祖檀經을읽
다가六根難見聞覺知不染萬像而
真性常自在다하시로하여忽然大悟
하시定慧를雙修하시順天松廣寺
를重創하고享年八十五歲時에三

月二十七日에入寂하시니上이聞之慟하
시謚號를佛日普照하시고塔號를甘露
露라하시現在奉安대大勢至菩薩像
은普照國師의造成이다

距今五百六十二年(西紀一四〇〇)李太祖王
師이신無學祖師께서瑞山郡看月島
에서五夫하시다本寺에來하시百日
祈禱를畢하고李朝第三代太宗께서泰
達하시王이許諾하고國財로一新重修
하시依舊大昌하시僧徒가百餘名이
다其後太宗께서命召王師하시니翌
年에辭退하시京畿道楊州檜巖寺에
서入寂하시니塔號를慈智洪融이하시다
距今四百九十五年(西紀一四七三)李朝第
七代世祖十年梅月堂(金時習端宗生宣
中二)이聖住山外鳥棲山遊覽하시다가本

寺의 五年 隆修道中 若干重修하였
佛前의 禮拜하여 三日을 晝夜로 大聲
痛哭하고 敬之 四方하여 겨우 二三名의

僧이 古아시 土窟을 모으고 四尊 佛像을

第 十四代 宣祖 二十五年 壬辰 亂에 西山 奉安하고 村落의 가의 乞食을 하여 佛前

大師의 義僧兵 摠指揮者가 되어 이 至誠祈禱發하더니 數月後에 廣川李

義僧兵을 募集한대 本寺僧도 摠出動 氏一人이 外의 現存 寮舍를 세우다

戰死者가 不知其數였다 當時 倭 至今 三百十四年 (西記 一六四九) 李朝 第

兵이 本寺에 侵入하기 二日前의 十餘 十八代 顯宗 十三年에 夢山和尚은 瑞山人

石의 僧에게 現夢을 하되 二日後에 大亂 二로 姓은 李氏로 十八歲에 出家하여 淨岩

이 일어난 것이니 土窟을 파고 佛像을 寺에서 削髮爲僧하여 瑞山 蘭芝 島에 가

고 후고 汝等은 避身하라 하거늘 大衆 十十年을 千手 百萬讀하고 運業을 하고

이 一時起寢하여 相議하니 現夢이 夢같은 渡海하여 本寺에 來하되 精進中 顯宗

지라 南方으로 四百步外에 現夢에 至實 八道 高僧을 命召함이 和尚이 上京하

現하고 기어다니 果然 倭兵이 侵入을 하여 三이 八道 高僧이 下問하되 장이 아지

後峰 爐殿과 各庵子 全部가 全 世子가 있으니 千가 장을 爲하여 佛前의 祈

燒하니 十餘日後에 僧徒가 會合하여 禱를 하여 世子를 見게 하고 하시기 對答하

는 者가 없더니 夢山和尚이 奏曰 小僧이 法堂 一棟을 下賜하시면 百日 祈禱를

하시 王子를 誕生케 하오리다 하니 王이 欣

然히 應諾하시고 國財로 法堂 一棟을 建

安하고 百日 祈禱 回向하시니 寺中 僧徒 全員

을 모아 놓고 大衆에게 이르되 나의 慧眼으

로 觀察하니 一國의 王子가 될 作福者가 있

으니 今夜에 入寂하여 王子로 되어 生것

이니 汝等은 勿驚勿悲하라 하시고 中夜

에 入寂하시었다 李朝 第 十九代 肅宗 大

王이 是和尚의 後身이라 한다

距今 一百十三年 (西記 一八五〇) 李朝 第

三十五代 哲宗 二年에 大雲和尚이 重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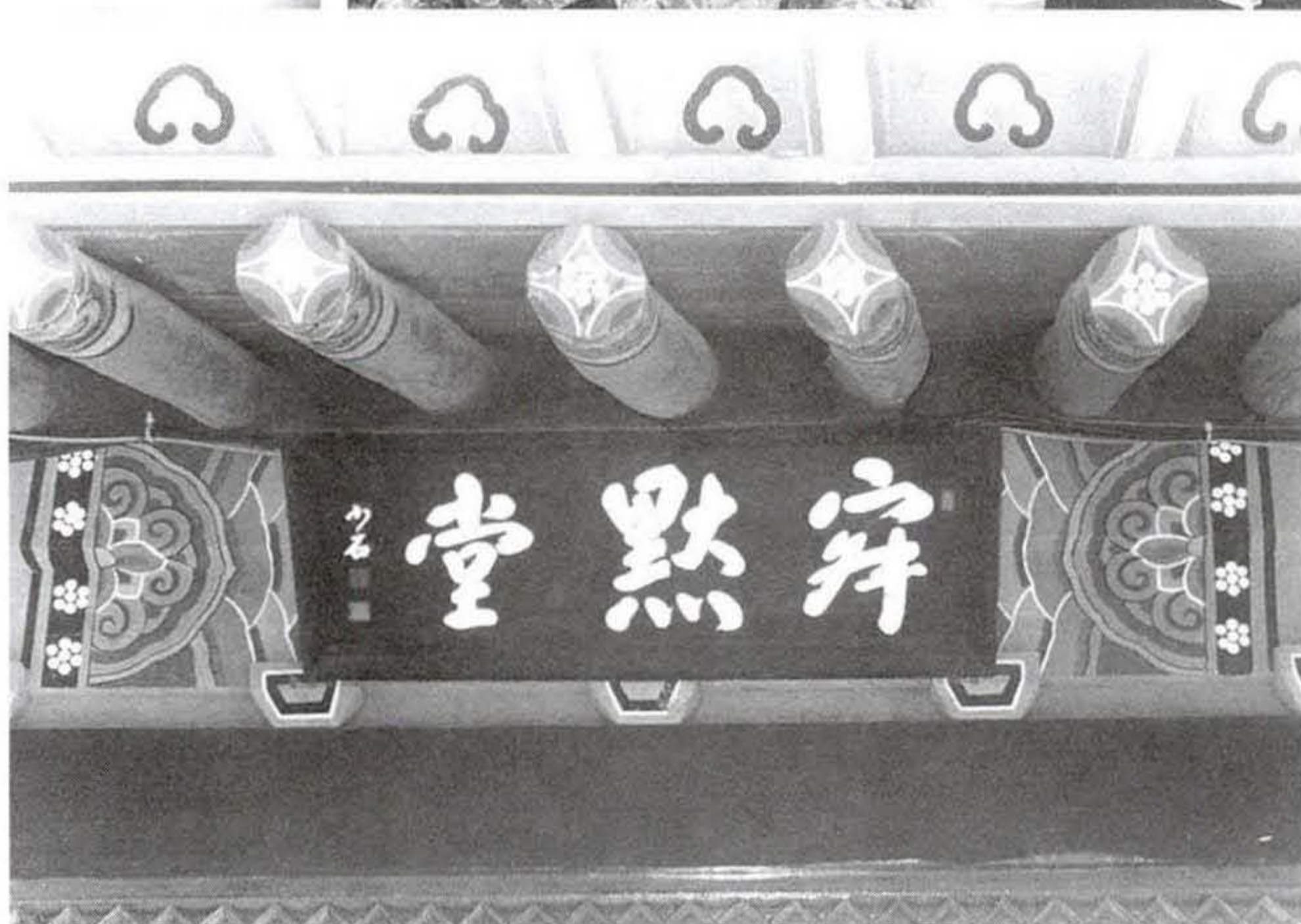
하다

西記 一八六二年 六月 四日 現在

▼ 정암사 전경









2. 내원사(內院寺)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오서산 중턱에 있다.

내원사는 장곡면 광성리 오서초등학교 버스종점에서 4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해 있다.

불교사전에 기록된 것에 의하면 오서산 동북쪽 중턱에 있는 고찰로 백제 의자왕 16년에 법명(法名)대사에 의하여 창건되었다고 한다.

법명대사는 백제 665년 의자왕 15년에 일본 대마도에 건너가 오음으로 유마경을 독성 강론하였으며, 일본에서 오음으로 불경을 전파하였을 정도로 이름 있는 고승이었다고 한다.

중창년대는 조선조 현종 5년, 갑진 4월에(1664년) 주지 나고스님이 중창하였다고 한다. 고종 16년(1819년) 9월에 용화스님에 의해 중창하여 유지해오다 6·25때 소실되었다 한다. (이상 줄임)

그후 부분적으로 중창하여 유지해오던 내원사는 1997년에 화재로 인해 원통전이 소실되었다.

현재는 임시로 부처님을 모실 법당을 지어놓았지만 심한 비에 붕괴직전에 놓여 있다. 가건물상태인 요사채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신축이 요망되고 있다.

옛날의 원통전 자리에 대웅전을 신축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관계기관과 뜻있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부속 건물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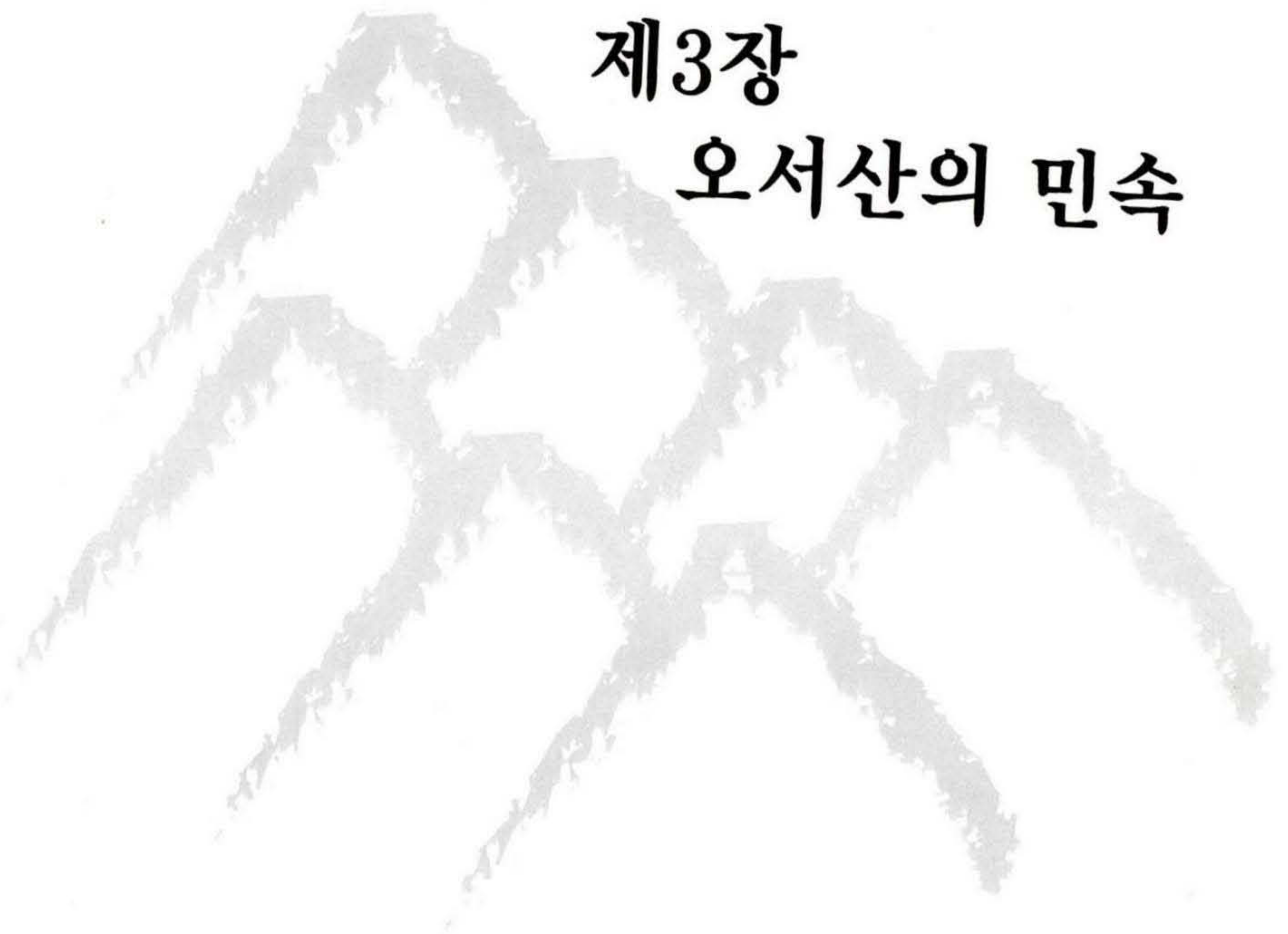
- (1) 임시대웅전 : 팔작지붕 양개와 정면 3칸, 측면 2칸 12평
- (2) 원통전 : 평지붕 개와 전면 2칸, 측면 1.5칸 6평
- (3) 불상 : 석가여래상
- (4) 요사채 : 1동 5칸 6평

▼ 내원사 전경





제3장 오서산의 민속



제3장 오서산의 민속

1. 민간신앙

1) 백제 부흥군 위령제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 석상산성 건물지)

(1) 명칭 : 백제 부흥군 위령제

(2) 성격 : 백제 부흥군

(3) 위치 :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 28-2번지(석상산성 건물지)

(4) 형태

백제 부흥군 위령제를 지내는 장소는 건물지 없다.

옛날에 백제 부흥군 부흥운동 당시에 건물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평평하게 펼쳐져 있다. 옛날에는 이곳에 밭이 있었는데 상명여대 박물관 팀에서 이곳을 밭굴 조사하였다. 그후로 이곳에서 건물터가 발견되었고, 잔디를 심어 놓았다. 이곳에서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5) 제의 목적

위령제를 지내는 목적은 백제 부흥군들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위령제는 이웃에 있는 예산의 임존성에서도 지내고 있다.

(6) 제일

백제가 멸망한 것은 서기 660년이다. 그러나 그뒤로도 백제 부흥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졌다. 3년여동안 부흥운동을 활발하게 펼치다가 안타깝게도 부흥군의 내분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백제 부흥군이 나·당 연합군에게 최종적으로 패한 날이 서기 663년 9월 27일이었다. 그래서 이날을 위령제의 날자로 정해서 지내고 있다.

(7) 제의 주관자

백제 부흥운동 위령제는 홍성문화원장이 주관하여 지내고 있다. 홍성문화원 주관으로 향토문화연구회원들과 면내 기관단체장들과 주민들이 함께 지내고 있다.

(8) 금기

특별한 금기 사항은 없다.

(9) 제물과 제의 절차

제물은 일반 제사와 비슷하게 차린다. 제의 절차도 전통 제사 절차에 의하여 지내고 있다.

초헌관은 면장이 하고 아헌관은 향토문화연구회장이 한다. 종헌관은 장곡면장이 한다.

(10) 제의 비용과 결산

위령제의 비용은 문화원, 향토문화연구회, 홍성군과 장곡면 등에서 공동으로 부담한다. 특별한 결산 절차는 없다.

(11) 마을 사람들의 신앙 태도

마을 사람들은 이곳이 백제 부흥운동의 중심지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역사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몇몇 단체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곳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12) 유래 및 전설

이곳이 백제 부흥운동의 중심지였던 주류성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위령제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그 결과로 홍성문화원장과 홍주향토문화연구회원을 중심으로 위령제를 추진하였다. 백제 부흥군 위령제를 지내기 시작한 것은 1995년부터이다. 앞으로는 범군민적인 행사로 키워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곳 주류성 주변에는 백제 부흥운동과 관련한 크고 작은 얘기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다. 그 중에서 상여바위 전설이 있다.

이 석성의 정상 부근에는 큼지막한 바위 하나가 우뚝 솟아 있는데, 그 이름이 상여바위이다. 이곳 사람들은 이 상여바위에 얽힌 이야기야말로, 이 성이 주류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설이라고 믿고 있다

2) 느티나무제 (홍성군 장곡면 오성리)

(1) 명칭 : 느티나무제 또는 고목나무제

(2) 성격 : 목신

(3) 느티나무의 위치

오성리는 오서산의 북서쪽 바로 아래 마을이다. 마을의 바로 아래 쪽에는 죽전 저수지가 있고, 마을과 저수지 사이로는 광천으로 통하는 아스팔트길이 나 있다. 죽전 저수지는 낚시터로 이름이 나있어서 낚시꾼들이 즐겨 찾고 있다.

마을의 뒤흘에는 오서산이 감싸고 있고, 바로 아래에는 넓은 저수지가 뻗어 내려다 보여서 경관이 수려한 마을이다. 마을로 들어서는 입구에도 오래 된 소나무가 몇그루 서 있어서 경치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제사를 지내는 느티나무는 마을의 중앙에 위치해 있다. 느티나무 바로 앞에는 마을 노인회관이 있고, 느티나무 주변은 좁은 공터가 있다. 이 앞에서 제사를 지낸다.

(4) 느티나무의 형태

느티나무는 밑둥 부분이 어른의 팔로 세 아람 정도 된다. 나무의 중간 부분에서 두 줄기로 갈라졌고 꼭대기 부분은 삭아서 부러져나간 흔적이 있다. 너무 오래된 고목이어서 밑둥 부분부터 중간의 갈라지는 줄기 부분까지 치료를 받은 흔적이 있다. 시멘트로 패인 부분을 채워 놓았다. 밑둥 둘레는 둥그렇게 흙으로 화단을 만들어 놓았고, 화단 가에는 돌로 독을 쌓아 놓았다.

(5) 제의 목적

느티나무제를 지냄으로써 마을에 재앙을 물리치기 위함이다. 마을 주민들과 출향한 아들 딸들이 모두 무사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제사를 지낸다.

(6) 제일

매년 정월 대보름 날 제사를 지낸다. 아직까지 제사 날을 어겨본 적이 없다.

(7) 제의 주관자

느티나무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하는 사람은 마을 이장이다.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제의 모든 준비를 한다. 제의는 제주를 선출하여 진행한다. 제주는 그해 생기복덕을 보아서 운이 닿는 사람으로 한 명을 선출한다.

(8) 금기

3일전부터 제단에 흰 새끼를 꼬아서 금줄을 쳐놓는다. 아이들이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한다.

(9) 제물과 절차

음식은 삼색실과와 돼지머리 등을 차려놓는다. 일반 제사와 같은 제물을 쓴다.

음식은 제주 집에서 주민들이 장만한다. 제의 절차는 일반 제사와 비슷하다.

제주가 삼배를 하고 끝날 때는 참석한 주민 모두가 공동으로 절을 한다.

남녀 구별 없이 모두 참석한다. 제사가 끝나면 참석한 주민들이 모두 느티나무 주변을 몇 바퀴씩 돈다. 옛날에는 농악도 쳤지만 지금은 생략하고 있다.

(10) 제의 비용과 결산

마을 기금으로 충당한다.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결산은 대동회에서 한다.

(11) 마을 사람들의 신앙 태도

마을 사람들은 옛날부터 느티나무를 상당히 아끼고 있다. 옛날에는 느티나무제를 상당히 경건하게 지냈다. 그러나 지금은 옛날만큼 경건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제사를 지내고 주민들이 기분 좋게 어울린다는 생각으로 참여한다. 제사는 어른들 주관으로 지내고,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이 하는 일에 따라오는 정도이다.

(12) 유래 및 전설

오성리에서 느티나무제를 지내게된 것은 십여년 밖에 되지 않는다. 옛날에는 느티나무와 비슷한 나이의 은행나무가 위쪽에 나란히 있었다. 그런데 이 은행나무를 주인이 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베어서 팔았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은행나무를 베어낸 집안은 몰락하고 말았다.

마을에도 좋지 않은 일이 자주 일어났다. 젊은 사람들도 죽고 불행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 마을 주민들은 은행나무를 베어내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기왕에 베어낸 은행나무야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남아있는 느티나무라도 잘 위하자는 말들이 나왔다. 그 뒤로 느티나무제를 지내기 시작했다.

이 마을에는 재미 있는 전설 하나가 전해지고 있다.

오성리와 산고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동쪽으로 광성리 안골이라는 마을이 있다. 옛날에 오성리에는 여덟 명의 장수가 살았고, 안골 마을은 아홉 명의 장수가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오성리는 오서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지만, 안골 마을은 물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다. 지형상 오성리에서 물길을 내줘야 안골 마을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다. 안골에서는 오성리의 물을 그쪽으로 끌어다가 농사를 지으려고 했지만, 오성리 에서 반대를 하였다. 그 바람에 안골의 아홉 장수와 오성리의 여덟 장수가 싸움이 붙었다. 결과는 오성리에 있는 여덟 장수가 싸움에서 패하고 말았다. 그 결과로 오성리쪽에서 물길을 내어 안골로 보냈다. 지금도 물이 흘러가던 길이 있다. 수로의 이름을 “사기수명” 이라고 한다.

◆ 느티나무제 모습 ◆



◁ 느티나무 모습



제물 ▷



◁ 재배하는 모습



축문을 읽는 모습 ▷

3) 산 제 (홍성군 광천읍 담산리 중담 마을)

(1) 명칭 : 산제

(2) 성격 : 산신(호랑이)

(3) 산제당의 위치

광천읍을 벗어나서 구장터 다리를 건너고 신대마을을 거쳐서 오서산으로 향하다 보면, 오서산 바로 밑으로 담산리가 있다. 이 담산리 중에서 맨 아랫마을이 하담, 가운데 마을이 중담, 맨 위쪽 마을이 상담이다.

중담은 오서산 남쪽 기슭 아래로 50여호가 살고 있는데, 일제시대 때 개발되었던 금광 터가 남아있다. 이 금광이 있는 오서산 남쪽 기슭 산언덕에 산제당이 있다.

(4) 산제당의 형태

옛날에는 조그맣게 초가집의 산제당이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없어졌다. 지금은 커다란 바위를 쌓아서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놓은 제단 터만 남아있다. 제단 앞쪽 부근에는 샘도 있고 산위에서 물도 흘러내리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출입이 끊어진지 오래되어서 가시덩굴들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다.

(5) 제의 목적

마을의 발전과 마을 사람 모두가 무사하고 잘되기를 기원하기 위해서이다.

(6) 제일

매년 정월 초사흘날 저녁에 산제를 지낸다.

(7) 제의 주관자

산제는 마을의 제일 어른들 중에서 생기복덕을 보아서 선정한다. 산제를 지내기 며칠 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제일 무난한 어른을 제주로 뽑는다. 제주는 한 명을 뽑고, 산제 지내는 것을 도와줄 화주도 2명 뽑는다.

(8) 금기

제주로 뽑힌 사람은 산제를 지낼 때까지 문밖 출입을 삼가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새벽마다 제단 앞에 흐르는 물에 가서 목욕을 깨끗이 해야 한다. 화주는 새벽마다 제단 앞에 샘물을 퍼내고 제단과 주변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한편 제물을 담은 그릇은 해마다 새것을 구입하여 사용한다.

제물을 구입할 때는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다른 사람이 사기 전에 제일 먼저 구입해야 한다.

산제에 쓰는 제물 값은 절대로 깎아서도 안된다. 또한 마을 사람들은 산제 지낼 때까지 싸움을 하지 않아야 한다. 싸움을 하다가 상처를 입어서 피가 나가거나 코피가 터지면 부정이 들기 때문이다.

(9) 제물과 제의 절차

제물은 보통 제사와 비슷하게 차린다. 비용이 넉넉하면 제물도 다양하게 차리지만 보통 삼색실과와 포, 그리고 돼지머리 정도를 준비한다.

제의 절차는 마을에서 낮동안 풍물놀이를 하며 즐겁게 어울린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차린 음식과 떡을 가지고 제단으로 올라간다. 산제는 제주와 화주 2명만 올라가서 지내고 내려온다.

떡은 마을에서 찌가지고 올라가지만, 밥과 국은 산에 올라가서 직접 지어서 산제를 지낸다. 제단 앞쪽에 있는 샘물을 퍼서 밥과 국을 끓인다.

축문은 산신축과 일반축의 두 가지를 읽는다. 소지는 각 가정의 호주 이름을 적어서 일일이 올려준다. 산제를 끝내고 내려오면 음식을 나눠먹으며 다시 흥겨운 시간을 보낸다.

(10) 제의 비용과 결산

산제에 들어갈 비용은 집집마다 풍물을 치며 걸립을 하기도 하고 마을 기금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소요되는 비용은 마을회의에서 미리 정하기 때문에 특별한 결산 절차를 밟지는 않는다.

(11) 마을 사람들의 신앙태도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산제를 상당히 신성시 했다. 마을 주민 모두가 정성껏 산제를 지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생각이 많이 사라졌다. 개신교가 들어와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영향도 있고, 마을 주민 대부분이 산신제를 꼭 지내야 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산신제를 중단한 지가 여러해 됐다.

(12) 유래 및 전설

산신제와 관련하여 특별한 유래나 전설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2. 전설

1) 고륜바위(소재지 - 광천읍 담산리 오서산 중턱)

광천읍에서 남동쪽으로 약 2km쯤 오서산에 오르노라면, 산허리에 열길이 넘는 깎아지른 듯한 바위가 웅장한 모습으로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 바위가 바로 고륜바위이다.

아주 먼 옛날, 이곳 담산리에는 윤천륜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다. 이 마을의 유일한 양반집 외아들이요, 인물이 준수하기 이를 데 없었다. 총명하기 또한 비길데 없으니 인근의 평판은 드높을 대로 드높았다. 천륜이 열일곱 살이 된 어느 해 봄이었다. 밤이 깊도록 글을 읽고 있었다. 그러다가 삼경이나 되었을까. 천륜은 문득 들려오는 비파소리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었다. 한지문을 뚫고 들어오는 달빛속에 묻혀 높아졌다가 낮아지며, 낮아질 듯 높아지는 비파소리에 천륜은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고 말았다. 그리고 문을 열어 밖으로 나왔다.

빈 뜨락에서는 향긋하게 풍겨오는 꽃내음이 가득하고, 그 위에 달빛이 모여 속살거렸다. 비파소리가 한결 가까이에서 들려오는 듯 했다. 그러다가 천륜은 참으로 상서로운 구름 한 줄기를 발견했다. 오서산으로부터 서서히 내려오는 오색영롱한 구름무리, 구름이 천륜의 가슴에 안겨오자, 비파소리는 마음을 끌어 내듯 하늘거렸다.

천륜은 알게 모르게 대문을 열어젖히고 밖으로 나갔다. 구름을 따라, 비파소리를 따라 앞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었다. 발걸음이 차차 오서산 기슭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다.

이윽고 구름이 머문 곳을 찾아 산모퉁이를 돌고 있을 때 천륜은 깜작 놀랐다. 오색영롱한 구름이 저만큼 앞에서 웅장하게 버티고 선 바위를 감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바위부리에서 환한 달빛을 송두리째 온몸으로 받으면서 한 여인이 비파를 뜯고 있지 않은가.

'저 여인은 누구일까? 혹시 하늘나라에 산다는 선녀가 아닐까?'

마침내 천륜은 켜 걸음으로 달려가 바위 밑에 이르렀다. 열길이 넘는 바위는 천륜의 발길을 거부하는데 오색의 구름은 더욱 영롱해지고, 비파소리는 더욱 천륜의 가슴을 흔들며 놓았다.

천륜은 온 힘을 모아 바위에 오르기 시작했다. 솔뿌리를 휘어잡고 바위너셀에 발끝을 디디었다. 미끄러지면 다시 오르고, 오르다가 다시 미끄러졌다. 그러나 천륜은 오르기를 멈추지 않았다. 바위부리에서는 여전히 비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천륜은 오르던 길을 멈추지 않았다. 손가락 끝에서 피가 흐르고 발톱이 으스러지도록 힘을 가했다. 그러나, 아, 골짜기를 울리는 비명소리가 비파소리를 멈추고 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천륜은 콧속에 스며드는 향긋한 내음에 슬그머니 눈을 떴다. 아슴스레 선녀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천륜은 곧 몸을 일으키려 하였지만, 도로 눕고 말았다. 선녀가 만류하였기 때문이다.

"이제야 정신이 드시옵니까? 바위밑에 도련님이 쓰러져 계신 것을 보고 이곳으로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녀님."

"아니옵니다. 도련님께서 그토록 오르시려는 것도 모르고 비파만 뜯었던 소녀가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시는군요. 다만 저는 선녀의 비파소리에 취하였을 뿐입니다. 가능하다면 다시 그 비파의 음률을 듣고 싶을 따름입니다."

선녀는 곧 곁에 세워두었던 비파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다시 타기 시작하였다. 사방둘레에는 오색구름이 하염없이 감돌고 달빛이 비파소리에 춤이라도 추듯 출렁거렸다. 가슴속 깊이에서 일렁이는 거센 물결이 온 산 가득히 울려 퍼졌다. 천륜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속에서 살아 꿈틀거리는 그 어떤 것을 비파소리에 맞춰 읊조리기 시작했다. 천의무봉의 완미를 이루는 천륜의 시가 그의 입속에서 저절로 흘러나왔다. 비파소리에 심취한 천륜이 시를 지어 화답하니 둘사이의 지기지우나 만난 듯 즐거운 시간이 저절로 흘러갔다.

문득 먼 데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선녀는 황망히 비파를 거두며, 자리에서 일어 났다.

"날이 새기 전에는 돌아가야 합니다."

둘레의 오색구름이 선녀의 발밑으로 모여들었다.

"선녀, 언제 또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천륜이 힘없이 말을 건넸다.

"인연이 닿는다면 새달 보름날 저녁 다시 뵙게 되겠아옵니다."

오색구름은 어느덧 선녀의 발목으로 무릎으로 감싸 오르더니 어느새 허리를 맴돌았다. 멀어져가는 선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천륜은 말없이 아쉬움을 달래는 것이었다.

한편 천륜의 집에서는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온 집안 식구들은 물론 마을 사람 모두가 천륜을 부르며 찾아 헤매기 시작한 것이었다. 몇몇씩 짝을 지어 오서산 골짜기로 기어올랐다. 점점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다가 그들은 큰 바위 밑에 쓰러져 있는 천륜을 발견하게 되었다. 놀랍고도 반가움에 사람들은 갈기갈기 찢어진 옷자락에 피투성이가 된 손발이며, 땀과 흙먼지로 뒤범벅이 된 천륜을 등져 업고 내려왔다.

사흘 낮밤을 근심과 걱정으로 지새우던 집안 사람들은 천륜의 입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러나 완전한 의식 속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다. 다만 “선녀님!”하고 외치는 신음소리 뿐만이 연이어 들려올 따름이었다.

천륜이 의식을 되찾은 것은 그로부터 사나흘을 더 넘긴 뒤였다. 그리고 천륜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천륜은 새달 보름날 다시 만나기로 한 말은 끝내 터놓지 않았다.

천륜의 몸의 상처가 다 아물고 기운을 다시 찾게 되기까지 밤낮이 거듭되자 드디어 보름날이 돌아왔다. 천륜의 동정을 살피며 지켜섰던 하인들은 오서산에서 한 줄기로 뻗쳐 내려오는 오색 구름을 보았다. 그 오색 구름이 천륜의 방문을 두드리는가 싶더니 포르르 말리면서 대문 밖으로 빠져 나갔다. 상서로운 기운에 사로잡힌 하인들이 몸을 숨기면서 그러한 광경을 찬찬히 살펴보다가 오색 구름이 완전히 대문 밖으로 빠져나가 오서산 골짜기 바위를 감돌자 비로소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곧 뒤로 몸을 돌려 천륜의 방을 살펴보았다. 분명 천륜은 열심히 글을 읽고 있었다. 가물거리는 쫓불 그림자에 천륜이 비추어져 있었고, 낭랑한 목소리는 여전히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 또다시 집안에 소동이 일어나고 말았다. 천륜이 없어진 것이었다.

천륜을 찾아 바위밑에 이른 하인들은 깜짝 놀랐다. 천륜이 또 전의 그 자리에 쓰러져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과 쓰러진 모습이 달랐다. 옷도 몸도 실한 데가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천륜의 몸을 살펴보는 하인들은 그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향내음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흔들어도 천륜으로

부터 어떠한 숨소리라든가 신음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다. 이미 숨을 거둔 것이었다. 마을 사람이나 하인들이나 집안 사람들은 통곡속에서 오색구름을 타고 선녀와 함께 천륜이 하늘나라로 올라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 뒤부터 사람들은 이 바위를 천륜이 죽어 간 바위라 하여 고륜바위라 부르게 되었다.

2) 아차산 (소재지 - 광천읍 용암리)

광천읍 용암리 마을에는 오서산과 한 맥을 이루고 있는 아차산이 있다. 아차산에 대한 옛이야기가 재미있게 전해지고 있다.

아득한 옛날,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한 어진 임금님이 살고 있었다. 그는 백성을 위하여 무엇이든 새롭게 창조해 냄으로써 백성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곤 하였다.

하루는 임금님이 이곳을 지나게 되었다. 임금님은 이곳 백성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오서산 밑에 다소곳이 앉아 있는 산을 바라보았다. 그리곤 묵묵히 상념에 잠겼다. 이윽고

"저 산을 조금 높이 쌓아 너른 바위를 바라보게 하고, 백성들이 그들의 자식과 즐겨 찾으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놀이터를 만들면 어떨까?" 하고 신하들에게 물었다. 그러나 신하들의 생각은 곧 둘로 갈라졌다. 그 하나는 가리키는 산의 높이로도 백성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 수 있는데 구태여 바쁜 추수기에 농민들을 부역시키는 일은 오히려 백성들의 원성을 높일 뿐이라는 것이요, 또 하나는 자손대대로 즐길 터전을 마련하는 데에 어찌 계절을 핑계 삼아 주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임금의 뜻에 따라 사상 유래 없는 대역사가 시작됐다.

대역사의 불만을 품게 된 젊은 신하는 공사가 시작되자 오히려 임금에게 공사의 감독을 자청했다. 공사에 비록 반대를 하였지만 백성을 위하는 임금의 뜻에는 근본적인 찬동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임금은 곧 그 젊은 신하의 요청을 받아들여 모든 공사의 감독을 맡게 하였다. 그러나 실은 그 젊은 신하는 공사를 빌미로 하여 임금의 자리를 빼앗고자 하는 음흉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즉 산을 허술하게 쌓아 놓은 뒤 놀이터를 완성하고, 준공식에 참석한 임금에게 놀이터 전체를 무너뜨려 매몰시켜 버리자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새로운 임금을 내세우자 할 때 자신이 임금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었다. 그러한 음흉한 계획을 전혀 알 길이 없는 임금은 젊은 신하의 충성된 감언이설에 속아 대역사의 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과 아울러 따뜻한 격려를 계속하곤 하였다. 젊은 신하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음모를 착착 진행시켰다. 신하를 따르는 심복 몇몇도 신하의 계획에 참여했다.

그러나 세상에는 결코 비밀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젊은 신하의 심복 하나가

자신들의 세력을 조금씩 넓히는 과정에서, 그만 충성스러운 늙은 신하의 심복에게 그들의 계획을 낱낱이 털어놓고는 자신들의 계획에 동참해줄 것을 제의하였다. 그들의 계획은 곧 늙은 신하에게 알려졌다.

심복으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늙은 신하는 깜짝 놀랐다. 그러나, 그는 곧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신의 심복에게 명하였다. 절대 입밖엔 누설하지 말도록 엄명을 내리고 난 뒤,

"너는 곧 공사에 참여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역적에게 협력하는 체를 하고, 모든 일을 그들의 계획대로 움직이면서 훗날 나의 명령을 기다리도록 하여라!"

하고는 곧 심복을 공사장으로 보냈다.

늙은 신하의 심복은 그 길로 공사장으로 달려가 젊은 신하의 계획에 참여하여 가장 열성스럽게 일을 하였다.

심복을 보내고 난 뒤 늙은 신하는 단독으로 임금 앞으로 나아가 아뢰었다.

"소신이 감히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소신은 지금까지 임금님을 모셔오에 있어 단 한 번도 남을 모함하거나 남을 허황되게 비난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옳은 말로써만 임금님께 아뢰었사옵니다. 따라서 소신이 오늘 홀로 임금님께 아뢰올 말씀이 있다는 것은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옵니다. 아뢰올 말씀에 굽어살펴주소서!"

임금은 늙은 신하의 모습을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전에 볼 수 없었던 늙은 신하의 태도가 자못 긴장감마저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늙은 신하의 말을 모두 듣고 난 임금은 심히 노했다. 그러나 임금은 곧 마음을 가라앉혔다. 늙은 신하의 충성됨을 모르는 바가 아니나, 젊은 신하 역시 충성스러운 신하라고 평소 믿어왔기 때문이었다. 임금은 어느 신하가 옳은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러자 늙은 신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임금님께서 소신의 말에 반신반의 하심은 잘알겠사옵니다. 하옵시면 임금님, 놀이터의 준공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면 하옵니다. 소신이 임금님의 뜻을 받들어 준공식에 참여하겠사옵니다."

그러자 임금은 또다시 놀라는 표정으로 늙은 신하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 그대의 말대로라면 그대는 준공식에 참여하여 결국 젊은 신하의 음모에 의하여 놀이터의 흙더미에 깔려 목숨을 잃을 것이 아니겠는가? 어찌 나 대신 준공식에 참여하려는 것이오?"

"소신의 목숨은 오직 임금님의 것! 어찌 임금님의 목숨을 보존하는데 이 미천한 목숨을 아끼겠습니까?"

"음……."

임금은 늙은 신하의 말에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다. 늙은 신하의 충성된 마음에 더 할말이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임금으로서 확실한 증거도 없이 젊은 신하를 벌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임금은 늙은 신하의 뜻대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말았다.

이러한 임금님과 늙은 신하의 이야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젊은 신하는 화려한 내일을 꿈꾸며 부지런히 산을 높이고, 그 높은 산에 아름다운 놀이터를 조성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어서 빨리 준공식을 올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도 꿈꾸어온 임금의 자리에 올라야지 하는 생각만으로 공사를 독촉하였다.

얼마 후 모든 공사는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젊은 신하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식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동안 공사 추진에 너무 온힘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만 병이 나고 말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젊은 신하의 심복들은 젊은 신하가 얼마나 공사에 열중하였는지 모른다고 제멋대로 지껄여댔다. 병이 나도 백 번은 더 낫을 것이라 했다.

이윽고 준공식을 알리는 나팔소리가 들려오는가 하더니, 임금이 모습을 나타냈다. 젊은 신하의 심복들은 그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묘한 웃음을 토해냈다. 쌓아놓은 산이 무너지고, 참석한 임금님이 묻혔을 때 심복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나 그 뒤에 나타난 또다른 임금! 그때서야 그들은 "아차!" 하고 외쳤다. 늙은 신하는 충성됨으로 임금 대신 목숨을 버리고, 젊은 신하는 역적으로 또한 목숨을 잃은 뒤, 젊은 신하의 심복들이 남긴 "아차!" 소리만이 오늘날까지 "아차산"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져 내려오면서 후세사람으로 하여금 늙은 신하의 충성을 우러르게 하고 있는 것이다.

3) 처녀바위(소재지-광천읍 담산리 오서산 중턱)

오서산 아래 담산리 마을에는 “처녀바위”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 처녀바위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더욱 신비스럽기만 하다.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 오서산 아래 한 가난한 집에 효심이란 처녀가 살고 있었다. 이름도 이름이거니와 효심이 지극한 효심이는 일찍 아버님을 여의고, 홀어머니를 한분 모시고 하루하루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머니가 중풍에 걸림으로써 매일매일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야만 했다.

어머니가 병환에 들지 아니하였을 때만 하더라도 품삯으로 어머니를 모시는 즐거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웃집에 품과는 일 끝에 어머니의 간호에 긴 밤을 밝혀야 했으니 어려움과 슬픔이 얼마나 했겠는가?

어느날 효심이는 아침 일찍 남의 집 밭을 매어 주고 나서 품삯으로 받은 보리 한뿔박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옷에 묻은 흙먼지를 툭툭 털어낸 뒤 두 손을 씻기가 무섭게 방문을 열고 앓아 누운 어머니의 병간호에 정성을 모았다. 비록 앓아 누워 있는 어머니일망정,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루종일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이야기하고는, 곧 저녁밥을 지어 올리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났다.

보리쌀을 들고 샘으로 가기 위해서 사립문을 나설 때였다. 문득 효심이는 묵탁소리를 들었다. 늙은 스님 한 분이 고요히 두 눈을 감은채로 염불을 외우고 있었다. 효심이는 문득 손에 든 뿔박을 내려다보았다. 뿔박 가득 채워지지도 아니한 보리쌀! 저녁밥을 지으면 어머니와 자신이 내일 아침까지 겨우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

효심이는 잠시 스님과 뿔박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마침내 스님의 등뒤에 매달린 바랑에 반쯤 부었다. 자신이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까지 각각 한끼씩만 굶으면 부처님께 시주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효심이의 마음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늙은 스님은 염불을 멈추고 잠시 효심이를 바라보았다.

"무슨 근심이 그리도 많으십니까, 남자?"

효심은 스님의 혜안에 깜짝 놀랐다. 어찌 그리도 정확하게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일까? 경외감에서 효심은 더듬거리며 겨우 말문을 열었다.

"소녀의 어머니가 벌써 몇 달째 중풍에 걸려 고생하고 계시웁니다. 자식된 도리로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으니 마냥 걱정이웁니다."

"음....."

효심의 말을 듣고 난 스님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또다시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목탁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염불을 계속하였다. 그리고는 한참 후에 중얼거리듯 무거운 입을 열었다.

"어찌 부처님이 그 효심을 모른체 하리오."

그러니까 오서산에는 심술궂은 풍신이 살고 있었다. 어찌나 심술궂은지 봄에는 바람을 일으켜 꽃을 쉽사리 시들게 하고, 여름에는 폭풍우를 일으켜 물난리를 맞게 했다. 가을에는 새하얀 무서리를 일찍 뿌려 곡식에 해를 끼쳤다. 그리고 겨울에는 추운 바람을 몰아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 이러한 심술에 그만 풍신의 아내마저 견디지 못하여 도망을 치다가, 가엾게도 그녀는 풍신이 내던진 큰 바위에 깔려 죽고 말았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 뒤 풍신의 심술은 더욱 거칠어져 갔다. 특히 여인네만 보면 더욱 심한 심술을 부렸다. 그런 와중에 효심이의 어머니가 밥을 매다가 풍신한테 들켜 그만 중풍에 걸리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병환을 고치는 데는 오서산의 오직 하나뿐인 산삼이라는 것이었다. 그것도 풍신의 아내가 깔려죽은 큰 바위 위에 있으며, 매일이면 매일 풍신이 지키고 있어서 잘못하다가는 풍신에게 희생당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스님으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들은 효심이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산삼을 구하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곧 남은 보리쌀로 정성스레 어머니에게 밥을 지어올린 뒤 오서산으로 향했다.

차츰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바다쪽에서 쏘아 불어오는 바람을 헤치면서 효심이는 마침내 산삼이 있다는 바위 앞에 이르렀다. 높이를 우러러 헤아리고자 하였으나 도저히 불가능했다. 까마득한 봉우리가 흔들거리는 나뭇가지 사이로 보였다 숨었다 했다.

그러나 효심이는 곧 바위를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산삼 한 뿌리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 산삼!"

효심이가 반가움에 가늘한 목소리를 토해냈다. 그리고 가까스로 다가가 산삼을 캐려고 호미를 들었다. 그 순간 어디에선가 느닷없이 센바람이 불어왔다. 효심이의 몸이 공중으로 솟구쳤다. 그리고 저만큼에 똑 떨어졌다. 정신이 아찔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정신을 가다듬었다. 분명 풍신의 심술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보이지도 않는 풍신을 향하여 빌고 또 빌었다. 두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풍신님, 저의 어머니를 살려주소서! 저의 어머니 병환이 고쳐지게 하여 주소서! 저의 어머니만 자리에서 일어나신다면 저는 풍신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간절하고 간절한 효심이의 목소리가 오서산 가득 메아리쳤다.

"그럼 산삼을 캐가는 대신 내일 해가 뜨기 전에 이곳에 오렸다!"

풍신의 우렁찬 목소리가 바람소리와 함께 오서산에 울려 퍼졌다.

산삼을 캔 효심이는 곧 집에 들어와 정성껏 다려서 어머니께 올렸다. 어머니는 산삼을 잡수시고는 곧 깊은 잠속에 빠져들었다.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바라보고는 효심은 오서산으로 향하였다.

얼마 후 마을 사람들은 오서산을 바라보다가 전에 보지 못한 이상한 모습의 바위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마을을 향하여 손짓하고 있는 처녀 모습의 바위. 그러나 그 바위는 곧 마을 사람들의 시야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어머니의 병환을 자기 목숨을 던져 고쳐드리고, 애처롭게 어머니를 향하여 손을 휘저으며 서 있는 처녀바위. 아무에게나 잘 눈에 띄지 않는 그 바위는, 바로 효심이가 변한 것이라고,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만 전해오고 있는 것이다.

4) 용티의 무덤(장곡면 광성리 3구 오서산 중턱)

장곡면 광성리 3구 오서산 중턱에 용제날터라고 부르는 기우제의 제단이 있다. 날이 가물 때에는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냈는데, 그 기우제를 용제라고 부른다. 이 근처에 묘를 쓰면 몇 년이고 가문다 하여 서로 묘를 못쓰게 말리고 있는 곳이다. 이에 대한 이야기가 재미있게 전해지고 있다.

"세상에,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말라 비틀어지는 곡식도 안보인다는 말인가?"

"벌써 석 달째 봄가뭄이니 어이한단 말인가?"

마을 사람들은 짹짹 갈라지는 논배미와 하늘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깊은 한숨과 함께 하늘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드높았다. 마을사람들은 생각 끝에 용티에 올라가 제사를 지내기로 하였다.

한편 이른 봄, 최부자집에 노승이 찾아와 대문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기 시작하였다. 노승은 아침부터 온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시주할 공양미를 한 톨 얻지 못한 터이라 잔뜩 기대를 모은 채 최부자집을 찾은 것이었다.

노승의 목탁소리가 높아지고 염불소리가 울려 퍼지자 솥을대문이 슬그머니 열리면서 하인이 나왔다. 하인의 등에는 쌀 한 가마니가 짊어져 있었다. 시주할 쌀이라는 것이었다. 공양미를 받고난 노승은 굳이 최부자를 만나고자 하였다. 그리고 최부자를 만나자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공양미에 대한 감사의 뜻이라면서 꼭 시행해보라는 것이었다. 그러자 최부자는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한 명당자리라면 분명 인맥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놀란 표정으로 외쳤다.

"그렇소이다. 산줄기가 줄줄이 흘러내리다가 마지막에 이르러서 가뜩 힘을 주었으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왼쪽에서는 청룡이 운무를 거느리며 용트림하고 있고, 오른쪽에서는 백호 한 마리가 바람을 데불고 비상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한다면 300년이야 영화를 누리기도 남음이 있겠지요!"

그 날 밤, 최부자는 하인 서너명을 이끌고 짙은 어둠속을 헤치며 종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아버지의 산소를 파헤친 뒤 시신을 꺼냈다. 아버지의 시신은 최부자 하인의 손에 의하여 용티로 옮겨졌다. 일을 마친 최부자는 사방을 둘러보고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했다. 비로소 안심했다.

하인에게도 이장의 사실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고 단단히 일렀다. 그리고 최부자는 노승의 말을 되살리면서 회심의 미소를 머금었다.

"용티에 이장을 하고 나면 집안에 큰 경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을에는 재앙이 겹칠 것이니, 또다시 이장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의 손에 이장하여야 되지요!!"

최부자가 아버지의 이장 사실을 숨기고 며칠이 지났다. 마을 사람들도 하늘을 우러르며 기우제를 지내고 며칠이 지난 뒤였다.

최부자의 아들이 장원급제했다는 소식이 이마을에 전해졌다. 최부자는 노승의 말을 또다시 떠올리며 기뻐서 어쩔줄 몰랐다. 곧 온 마을 사람들에 사실을 알리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

최부자집의 잔치에 참여한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맑은 하늘을 우러르며 혀를 끝끝 찼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졸라매었던 허리띠를 끄르고 잔치음식으로 배를 채웠다.

"그토록 정성으로 기우제를 드렸는데 물 한 방울 내리지 않으니 용티에 부정이 들었는가봐!"

"그렇지, 그렇구 말고! 부정이 들었어,부정이!"

마을 사람들은 음식상을 앞에 놓고도 온통 기우제와 가뭄 이야기뿐이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에 도 아랑곳하지 않는 최부자는 연신 맛있는 음식을 전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어서 빨리 마을사람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이장해주기를 바랐다. 만약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이장을 하면 노승의 말대로 이루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모처럼 불러온 배를 끌어안고 용티로 오르기 시작하였다. 부정이 들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었다.

용티에 올라온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뒤따라온 개 한 마리가 유난히도 짚어대는 것이었다. 그 자리를 살펴보니 미처 뿌리를 내리지 못한 뗏장이 덮여 있지 아니한가?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떼를 떼어 내고 그 자리를 파헤쳤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체를 발견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 시체가 부정의 원인이라고 하면서 시체를 용티 아래에 이장하였다.

그날 저녁부터 정말 꿈처럼 비가 내렸다. 하늘을 무너뜨릴 듯한 매서운 천둥소리와 더불어 칼날같은 번개를 번쩍이면서 주먹만한 빗방울을 마구 쏟아부

었다. 마을 사람들은 뒤늦게나마 갈라진 논에 물을 대고 다음 모내기를 하였다.

근심 소리와 한숨 소리가 드높았던 마을에 어느덧 농부가가 울려 퍼졌다. 며칠 후 최부자는 또다시 하인을 거느리고 어둠을 이용하여 아버지의 시신을 종산에 묻었다.

얼마후 벼슬길에 오른 최부자의 아들이 금의환향을 하였다. 그는 곧 최부자에게 큰 절을 올리고 용티에 올라가고자 하였다. 굳이 이유를 물었지만 아들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최부자는 하는 수 없이 아들의 뒤를 따라 용티에 올랐다.

용티에 오른 아들은 시신을 꺼내어 웅덩이가 되어버린 자리를 보듬도록 하였다. 그리고 뒤따라온 하인을 시켜 그곳에 나무를 심도록 하였다. 나무를 심는 동안 맑던 하늘에 먹구름이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버님, 명당자리가 파헤쳐져서는 자손에 경사가 생기지 않는다 하옵니다. 아버님을 뵈었던 노승의 말씀입니다. 명당을 썼으면 위로 치솟아 오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후 최부자집은 운수가 대통한 듯 300여 년 동안 영화를 누리며 살았고, 마을 사람들은 농사철 가뭄이라도 닥치노라면 기우제를 지낸 후 농사를 짓곤 하였다. 그리고 청룡과 백호가 용트림하고 비상하는 용티는 인맥 · 천맥 · 지맥의 명당터라고 불리우고 있다.

5) 최치원의 아들과 딸이 쌓았다는 석성산성과 학성산성

장곡면 월계리 쌍계에서 최치원 선생이 살았다고 한다. 그당시에 최치원 선생의 부인이 나소조(羅小組)인데, 남매를 두고 지냈다고 한다. 어느날 장성한 최치원선생의 남매들이 성쌓기 시합을 했다고 한다. 만약에 이 시합에서 진 쪽은 목숨을 내놓기로 했다는 것이다.

오빠인 아들은 석성산성(石城山城)을 쌓고 동생인 딸은 학성산성(鶴城山城)을 쌓게 되었다.

두 남매가 한참동안 성을 쌓는데 학성산성을 쌓고있는 여동생이 속도가 빨랐다. 어머니인 나소조가 생각해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아들이 목숨을 내놓아야할 판국이었다. 어머니는 딸보다는 아들을 살리고 싶은 생각이 앞섰다.

그래서 생각한 끝에 집에서 팔죽을 끓여가지고 딸에게로 갔다. 팔죽을 가지고 와서 딸에게 배고픈데 먹으면서 성을 쌓으라고 했다.

딸은 성을 모두 쌓고 마지막으로 문초석(門礎石)만 놓으면 되는 순간이었다. 문초석을 놓기 위해 치마에 커다란 돌을 담아가지고 오다가, 어머니가 쭈어온 팔죽을 먹기 위해 잠시 자리에 앉았다.

여동생이 팔죽을 먹는동안 오빠는 석성산성을 모두 쌓아가고 있었다. 여동생이 팔죽을 먹으면서 보니까, 오빠도 문초석만 놓으면 되는 상황이었다. 여동생은 급한 나머지 팔죽을 먹다말고 옆에 내려놓았던 커다란 돌을 치마에 담아가지고 부지런히 달려갔다.

그런데 여동생은 팔죽을 먹은 것이 탈이었다. 한참 달려가는데 갑자기 설사가 마려웠다. 팔죽을 먹어서 배탈이 난 것이었다. 한발짝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나오는 설사 때문에 치마에 담아가지고 있던 돌을 땅바닥에 놓고 말았다.

결국 성을 쌓는 내기는 동생의 승리로 끝났다. 이때 내기에서 진 여동생의 무덤이 장곡면 광성리 오서산 기슭에 있다고 한다. 여기에는 적성총 3기가 있는데 여동생과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의 무덤이라고 한다.

또한 여동생이 치마에 담아가지고 가다 놓친 커다란 돌은, 장곡면 대현리에서 산성리 삼거리쪽으로 500여미터를 지나다 보면, 도로변 오른쪽 논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석성산성의 북문과 학성산성의 동문쪽 칼바위가 있는 중간지점이다. 이 돌의 이름을 한치마석(間致摩石)이라고 한다.



▲ 석상산성

6) 수박구덩이(소재지 - 광천읍 담산리 상담)

오서산 기슭에 있는 광천읍 담산리 상담마을의 앞산이고, 광천읍 웅암리 돌캐마을의 뒷편에 있는 야트막한 산마을을 “진등”이라고도 부른다. 이 진등에 다섯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그 마지막 봉우리를 꿀꾸리봉이라고 한다. 이 봉우리의 남쪽편 자라목이 수리목고개인데, 이곳에서 남쪽으로 진등을 타고 가면 한고개 넘고 또 한고개 넘어 자라목진 곳을 수박구덩이라고 한다. 일명 “재연이골고개”라고도 한다.

이 아차산은 다섯 개의 크고 작은 봉우리로 연결되어 남으로부터 북으로 뻗어있기로 그 이름을 진등이라고 한 것 같다. 수박구덩이는 그 진등의 중간지점에 위치한다. 진등 산마루 능선 남쪽에서 북쪽으로 산길이 있는데, 옛날에는 나무꾼들이 다니기도 했지만 교통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보령 청라지방에서 광천을 거쳐 홍주로 통하는 지름길로 행인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어느 여름날에 있었던 일이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수박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었다. 이 농부는 이날도 수박을 한짐 짊어지고 재연이골 말랭이 노송정자 밑에 갖다 놓고 오고가는 행인들에게 팔고 있었다. 나무그늘에는 길손들이 여러 명 더위도 피하고 다리도 쉴 겸하여 모여들었다. 이때 광천쪽에서 새파랗게 젊은 선비 한사람이 딸을 뺨뺨 흘리며 오더니 노송정자그늘로 들어서며,

"아, 덥다. 그 수박 참 시원하게 보인다. 한 통 찹 빠개서 한쪽 먹었으면 더위가 당장 물러가고 갈증도 사라지겠다만 돈이 있어야 사먹지."
라고 큰소리로 혼잣말을 하더니

"수박장수! 수박 한 통 개평 삼아 돈 받지 않고 줄 수 없나?"
하고 넌지시 농을 걸었다. 수박장수는

"여보시오, 선비님. 그런 말씀하지 마슈. 수박농사가 그리 수월한 줄 아슈? 피땀 흘려 가꾼 것을 수확하여 돈 좀 만져보려고 이 고생 감수하는데 투전판도 아닌데 개평을 달라니 말도 안돼요."

하고 나무랬다. 그래도 이 선비 또 짓궂게

"개평이 안될 바에는 외상으로 한통 주게나. 지금 노자가 떨어져서 하는 말일세."
농부는 이 말을 듣고,

"내가 선비를 언제 보았다고 외상을 줘. 실없는 양반 다 보겠네."

라며 투명스런 대꾸를 했다. 이때 젊은 선비는 “허허” 하고 헛웃음을 짓더니
“그 사람 정말 사람 못 믿는군. 내가 외상 먹으면 후일 틀림없이 갚을 텐데
너무 인색하군. 그럼, 할 수 없지.”

하고 체념한 듯 하더니 그래도 장난끼는 사라지지 않은 듯했다.

“개평도, 외상도 안된다. 나는 수박을 먹고 싶고, 어떻게 한담. 수박씨 하나만
있으면 나도 농사지어 오늘같이 덥고, 갈증나는 날 수박을 마음껏 먹을텐
데…….”

하고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수박장수는 그 선비의 가당치 않은 말에 매우 냉
소적이며, 비웃는 말투로

“수박씨가 없어서요? 그건 안타까울 것 없소. 내 바지개 아래쪽에도 어제 받
아 놓은 씨가 있고, 땅바닥에도 씨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 농사를 지어 보구
려.”

하였다. 그러자 젊은 선비는,

“바지개에 있다는 수박씨 두서너개만 나누어 주겠나?”

청하니, 수박장수는 별로 거리낌없이 바지개에서 수박씨 몇 알을 주어 선비
에게 건네주었다.

“수박은 지금 먹고 싶은데, 이 씨앗으로 농사 지으면明年 이때나 따먹을텐
데 지금의 갈증은 어떻게 해결한데요.”

라고 비웃는 투로 수박씨를 건네었다.

“글쎄, 그 말 듣고 보니 그럴듯하네.”

하며 농부로부터 수박씨를 건네 받고, 소나무에서 삭정이 한가지를 꺾어 들었
다. 손잡이를 잡기 좋게 잘라 쥐고 그것으로 길바닥에 흙과 모래를 모아서 두
둑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농부로부터 건네 받은 수박씨를 그 두둑에 꽂아 놓
으니 순식간에 그 수박씨가 싹이 나고 떡잎이 갈라지는 것이었다.

기적은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어느사이에 두마디, 세마디 줄기가
자라며 잎이 피고, 꽃이 피더니 나비와 벌이 찾아와서 노래하며 꿀을 따가고
있었다. 이어서 탕자만하게 맺었던 수박이 주렁주렁 열리며 크기 시작했다. 수
박장수나 정자나무 밑에 쉬고 있던 길손들이 신기한 이 광경에 홀려서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새 첫마디에 열렸던 수박이 벌써 축구공만큼 컸다.

선비는 손가락으로 톡톡 튕겨보더니

“이놈이 먹을 만큼 익었구먼.”

하고 중얼거리며 거침없이 꼭지를 따내었다.

그리고는 허리춤에서 은장도를 꺼내 수박을 자르니 수박 속이 진홍색으로 먹음직하게 완숙되어 있었다. 길손들은 이 신기한 광경을 보고 환성을 올리고, 수박장수도 너무 황홀하여 뉘나간 사람처럼 바라만 보고있었다.

선비는 여러쪽으로 갈라 놓은 수박을 길손들에게 나누어 주며 먹으라고 권했다. 또 한통 따서 나누어 먹고, 또 따서 먹었는데 수박장수도 배가 부르도록 수박을 얻어먹었다. 선비는 수박 몇 쪽을 먹더니 더위도 가시고, 갈증도 달랐으니 이제 가던 길 가야겠다고 좌중들과 작별인사하고 청라쪽으로 훌훌 길을 떠났다. 정자나무 밑에 남은 길손들이나 수박장수도 이 신기한 광경을 보고 뉘이 나간 표정이었다. 선비의 뒷모습이 안보일 때까지 바라보다가 겨우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다.

수박장수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 돌아와 보니, 이게 웬일인가? 자가지게에 가득하던 수박이 하나도 없이 모두 없어진 것이었다.

"아이고매나, 내 수박! 어디로 갔어. 이제 나는 망했구나."

하고 탄식하니 모든 길손들이 그때서야 수박장수의 수박이 모두 없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수박이 한두 통도 아니고 모두 어디로 갔느냐며 시끌시끌 했다.

모두가 갑론을박 끝에 결론을 얻기에 이르렀다. 먼저 떠난 선비가 농사지었다는 수박은, 사실은 농부의 지게에 있던 수박이었다. 지게의 수박을 도술로 농사지은 것처럼 수박덩쿨로 옮겨 놓았던 것이었다. 자기들이 얻어먹은 수박이 모두 농부의 지게에 있던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렇지만 길손들이 수박 값을 내놓을 수도 없고, 내놓으라고 억지를 쓸 수도 없는 일이었다. 수박장수가 낙심을 하며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런 와중에 수박장수 부인이 밥 광주리를 이고 와서 남편에게 식사를 권하였다. 그리고는 젊은 선비 한 분이 수박외상값이라며 돈 5냥을 주고 가더라는 것이었다. 남편이 걱정하고 있을 것이니 빨리 전해 주라고 놓고 갔다며 엽전 꾸러미를 내놓는 것이었다.

농부는 그 선비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길손들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곳을 수박구덩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젊은 선비의 정체가 몹시 궁금했다. 당시 유명했던 토정 선생의 기행이 세상에 알려지자, 이곳에서 수박장수를 놀려주던 젊은 선비가 토정 선생이었을 것으로 추측해보기도 하였다.

제4장

오서산의 충·효·열



제4장 오서산의 충·효·열

1.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홍성군 광천읍 담산리, 신창 표씨 3효비)

조선말기에 암행어사를 지냈던 이중하라는 사람이 있었다.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국경 분쟁이 일어났을 적에 토문감계사의 직책으로 조선쪽의 대표가 되어 청나라 대표인 가원계와 함께 백두산 정계비를 직접 답사하고 국경 분쟁 해결에 노력했던 인물이다.

그가 후에(1892년경) 충청도 암행어사로 있을 때였다. 충청도 땅의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던 중에 오서산 기슭의 광성리 마을에 발길을 디밀었을 때였다.

이곳에서 민심을 살피던 그는 이 마을 출신 신창 표씨가문의 3대에 걸친 충·효·열·학행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다.

그때 이중하는 감탄하면서 "삼세를 이어오면서 충과 효와 열과 학행이 이같이 빛났다"라는 칭찬의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고 한다.

여기에서 이중하가 삼세라고 말한 것은, 1세가 표시영으로 임인적난 때에 창의(倡義:국난을 당해 의병을 일으킴) 했으니 충이요, 2세는 시영의 아들 윤경으로 학문을 하여 행함이 뛰어났고, 3세는 윤경의 아들 세창의 지극한 효행과 세창의 처 창녕 조씨의 지극한 열행을 말하는 것이었다.

(1) 충(忠)

조선의 20대 임금이었던 경종은 항상 병치레가 많았다. 거기에다가 슬하에 국통을 이어갈 후사가 없으니 그 걱정이 말도 아니었다. 한마디로 다병무자했던 임금이다. 이에 조정에서는 숯난 논란 끝에 경종의 이복 아우인 연잉군(후에 영조임금)으로 하여금 경종의 뒤를 잇게 하기 위해 왕세제로 책봉하였다.

그러나 항상 말들이 많은 조정의 대신들인지라, 연잉군의 세제 책봉 과정에서 골깊은 파벌이 형성되고 말았다. 경종을 추종하는 세력과 연잉군을 추종하는 세력으로 갈라지니,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당파싸움의 주역인 소론과 노론이다. 그후 숨가쁘고도 피비린내 나는 당파싸움 끝에 소론 4대신이 경종의 힘을

배경으로 노론 4대신을 역모로 몰아 죽이게 되니, 이것이 바로 신임사화이다.

그러나 4년 후에 연잉군이 영조 임금으로 즉위하게 되어 세상은 뒤바뀌고, 노론이 득세하게 되니 소론 일파는 죽거나 귀양으로 내몰리게 되는 신세가 되고 만다.

그러던 중, 1728년(영조 4년)에 충청도 지방에서 이인좌의 난이 일어났다. 난을 일으킨 자들의 명분이야 어떻든 간에, 그 속 뜻은 권력의 뒤편길로 밀려나 세력이 꺾인 데 대한 반발과 함께 재득세를 위한 소론 일파의 속셈이었던 것이다.

반란군의 세력은 충청도 땅을 유린하면서 충청 감영이 있던 청주까지 진입하였다. 이들은 청주병사 이봉상(이순신의 손자)까지 살해하며 그 세력을 서울로까지 옮겨가고 있었다. 그러나 반란군의 세력은 경기도 안성 부근에서 관군의 세력에 의해 그 힘이 꺾이고 완전히 진압되기에 이른다.

이때 이인좌의 난 당시에 바로 오서산 기슭의 광성리 출신인 표시영이 의용군으로 가담하여 반란군을 진압하는데 적지않은 공을 세우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후에 이곳을 지나던 암행어사 이종하가 말한 신창표씨 가문의 종이다. 그러나 일부 문헌에는 표시영의 의병활동이 이인좌의 난 때가 아니라 홍경래의 난 때였더라는 기록도 있다.

(2) 효와 열

오서산 기슭의 나무들은 꽤나 무성했다. 가진 재산 없이 몸 하나로 벌어 먹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나무들은 좋은 돈벌이를 제공했다.

표세창 역시 마찬가지였다. 조상 대대로 재물을 탐하기보다는 깨끗한 정신을 중요시 하며 청렴결백하게 살아 온 집안이었으니 가세가 넉넉할 리 없었다.

젊은 세창은 오서산 기슭의 나무를 베어 팔고 그의 아내 창녕 조씨는 날품을 팔아 모은 돈으로 부모를 봉양하며 집안을 꾸려 나갔다. 이렇듯 두 젊은 부부의 한 치 어그러짐 없는 행동거지와 효성은 항상 동네 모든 이들의 좋은 칭찬거리가 되었다.

"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법이지."

그의 아버지 시영은 국난을 당했을 때 의병을 일으켰고, 아버지 윤경은 뛰어난 학행으로 인근 모두의 흠모를 받는 인물들이었기에, 그 가르침을 받고 자란 세창 부부를 빗대어 칭찬하는 말이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세창 부부가 중년의 나이에 이르렀을 때였다. 그때 이미 이들이 갖은 정성으로 봉양하던 노부모님은 세상을 떠난 후였고, 슬하에는 아들 3형제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그러나 이 무렵 하느님은 지금까지 겪어온 가난보다도 더욱 어려운 시련을 세창의 집안에 내려 주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세창의 죽음이었다.

어느날부터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던 세창의 병은 차도가 없었다. 세창의 처 조씨는 별의별 방법을 다 써가며 남편의 병구완을 했다. 매일 매일 남편의 변을 맛보아 가며 그때그때 필요한 약을 지어 남편에게 먹였다. 그렇지만 야속하게도 남편은 먼저 저세상으로 떠나고 만 것이다.

남편의 주검을 앞에 두고 조씨의 슬픔은 하늘이 무너질 만큼 컸다. 그러나 상중에는 겉으로 조금도 슬픈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의 손이 안닿는 데가 없이 남편의 장례 절차를 두루 살필 뿐이었다.

초종범절을 갖춰 남편의 장례를 모두 마친 후, 조씨는 조용히 3형제를 방안으로 불러 들였다. 아들 3형제를 앞에 앉혀 놓은 조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일찍이 들으니 신하는 임금으로 하여금 죽고, 아내는 지아비로 하여금 죽는다고 했다. 이제 나는 내 일이 끝났다. 내 마음은 이미 결정을 했으니 너희는 가도를 잘 닦을 것이며, 너희 선인의 업을 이어 받아서 부끄러움이 없게 하라."

라는 말을 남기고 그 순간부터 일체의 음식물을 입에 대지 않았다. 가족과 주위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며 마음을 돌릴 것을 간청했으나 모두 허사였다. 남편 세창이 죽은지 3개월 후에 조씨도 조용히 남편의 뒤를 따르고 말았다.

이에 지방 유림에서는 표씨 일가의 3대에 걸친 충·효·열·학행을 높이 사서 장곡면 광성리에 비석을 세웠다. 지금은 광천읍 담산리 상담마을 오서산 기슭 선영으로 옮겨져 관리되고 있다.

다음은 비석 전면에 새겨진 글귀이다.

그 뜻을 대충 의역해 보면,

말보다는 독실하고 친절한 행실을 앞세워 그 일가의 명성을 더욱 빛내므로, 사람들이 이를 널리 밝히니 이는 하늘에서 내리는 영광이며 칭찬이다. 인륜을 앞세운 삼대에 걸친 삼강오륜의 실행은 길이 꽃다운 이름을 남길 것이며, 기왕에 비를 세우는 영광을 입으니 사람들은 옛어른들의 가르침을 공경하고 마음에 새겨 닦아야 할 것이니라.

제5장
오서산 일대에
흩어진 주류성의
흔적들

제5장 오서산 일대에 흩어진 주류성의 흔적들

1. 산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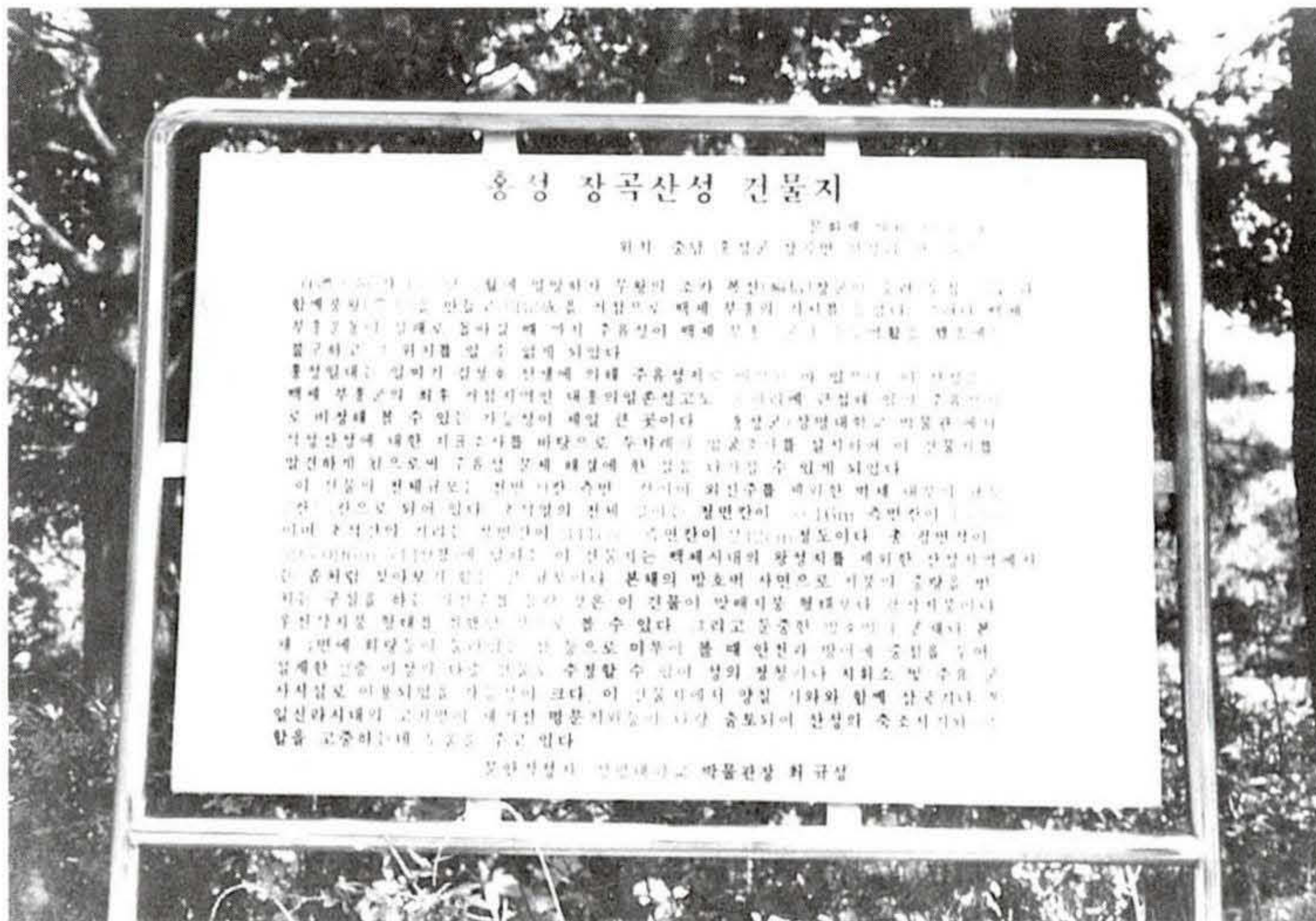
1) 석성산성

서기 660년에 백제가 나·당 연합군에게 멸망하긴 했지만, 백제 유민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한 부흥운동을 전개하였다. 일본에 머물러있던 왕자 풍을 모셔와 부흥군의 지도자로 삼았고, 주류성을 근거지로 하여 3년여동안 불굴의 투쟁을 벌였던 것이다.

그로부터 1,300여년이 흐른 지금 백제부흥운동의 근거지였던 주류성의 정확한 위치가 불분명한 형편이다. 부안설, 한산설, 홍주설 등 여러곳에서 주류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홍성군 장곡면 일대가 주류성이라는 학설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중이다.

이에 홍성군에서는 홍주향토문화연구회와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주류성에 대한 고증작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특히 1997년 5월과 7월에는 상명여대 박물관에 의뢰하여 오서산의 지맥인 장곡면 산성리에 있는 석성산성을 지표조사한 바 있다. 이 지표조사에서 전면 9칸, 측면 5칸의 근 200여 평에 이르는 대형 건물지를 발굴해 내었다.

홍성 석성산성 건물지 발굴조사보고서(1998.9)에 의하면, 이 건물지는 단일 건물지로서는 백제 왕성지를 제외한 다른 산성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큰 규모의 다층건물이 있던 곳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뿐만 아니라 통일신라를 전후한 시대의 것으로 보여지는 다량의 양질 기와와 함께 「沙尸良」을 비롯한 「沙羅」「沙羅凡草」 등 백제시대 지명이 새겨진 銘文古瓦들이 다수 출토됨으로써 주류성의 위치비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얻게 되었다.



▲ 석성산성건물지 안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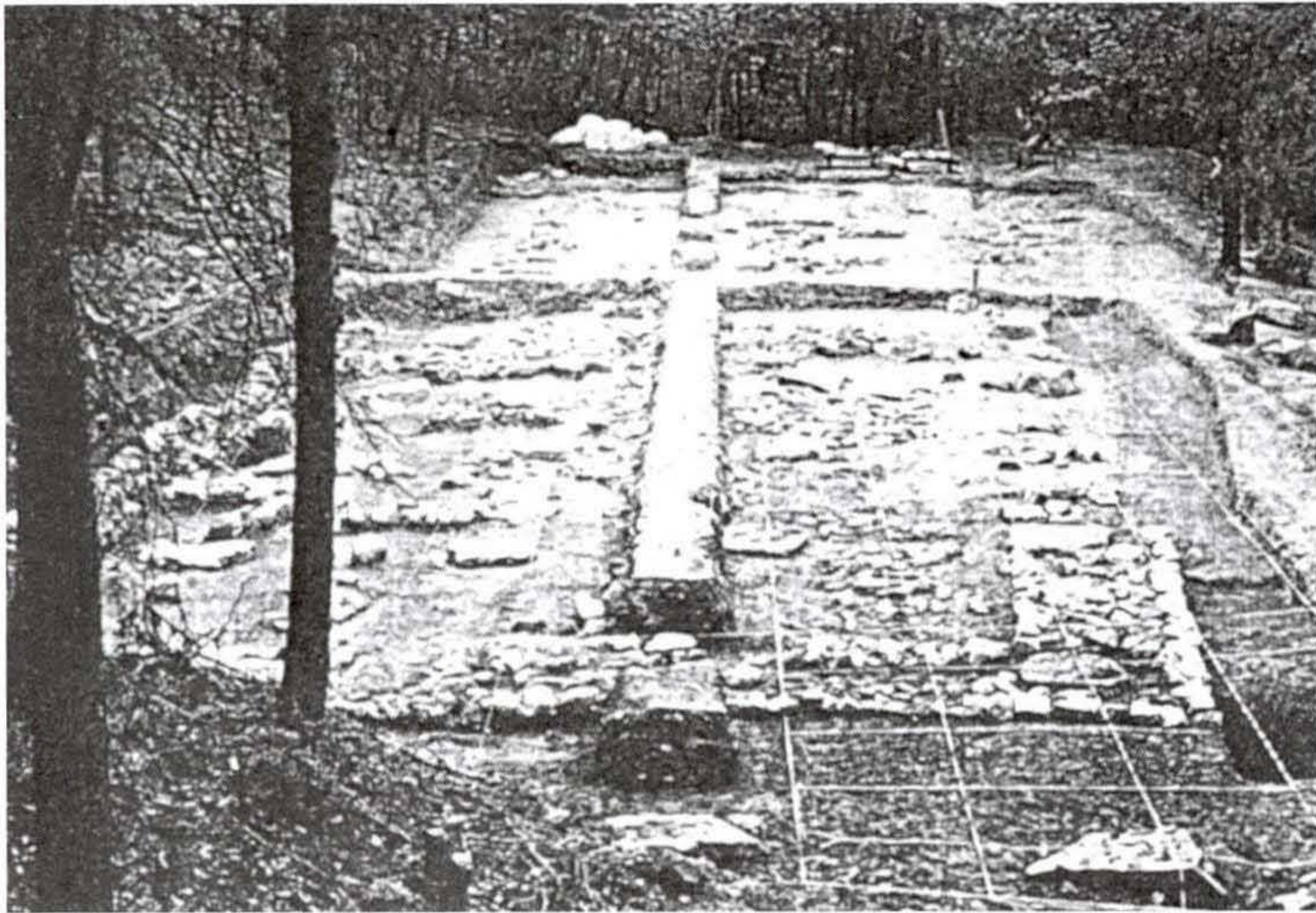
▲ 석성산성



▲ 석성산성 건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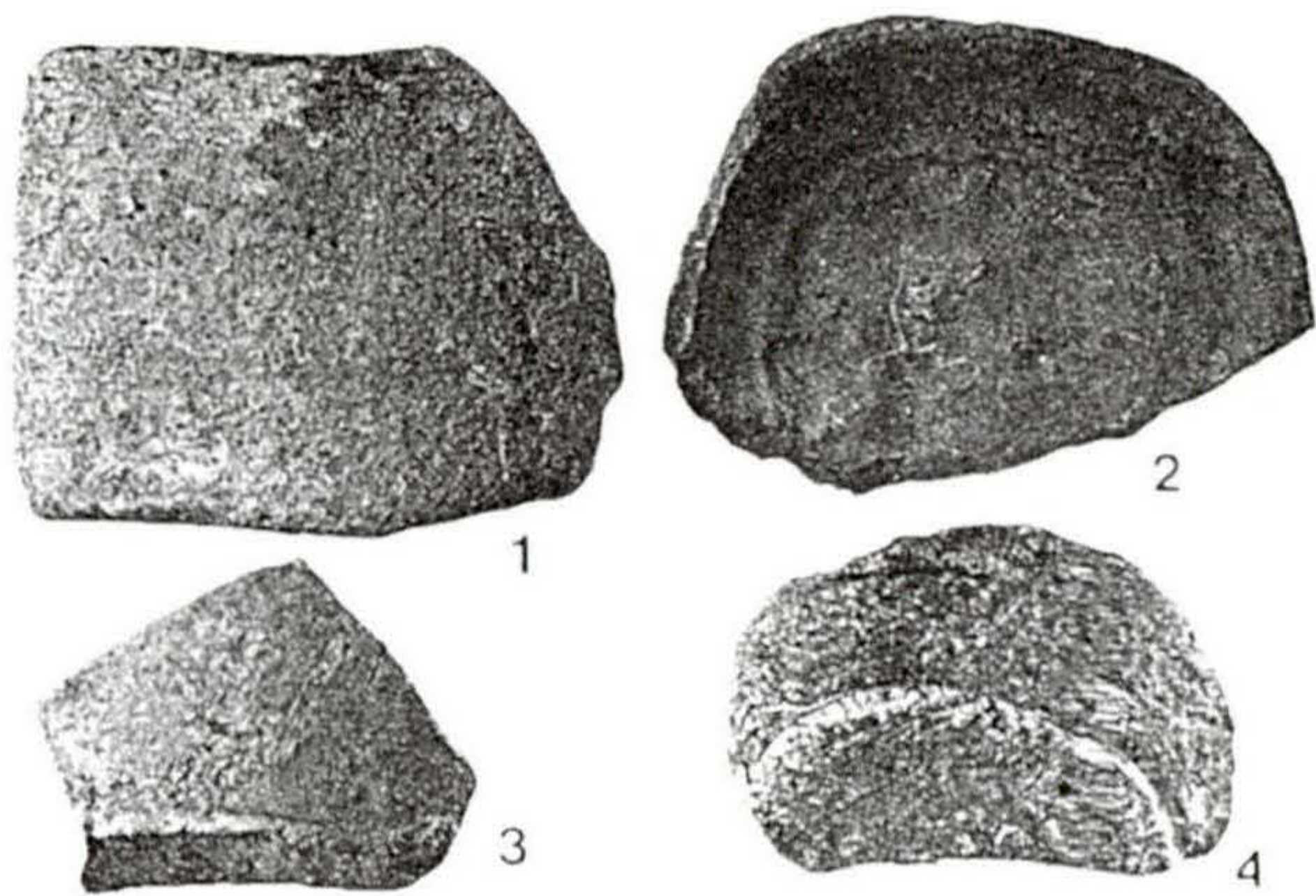
▲ 석성산성 건물지 출토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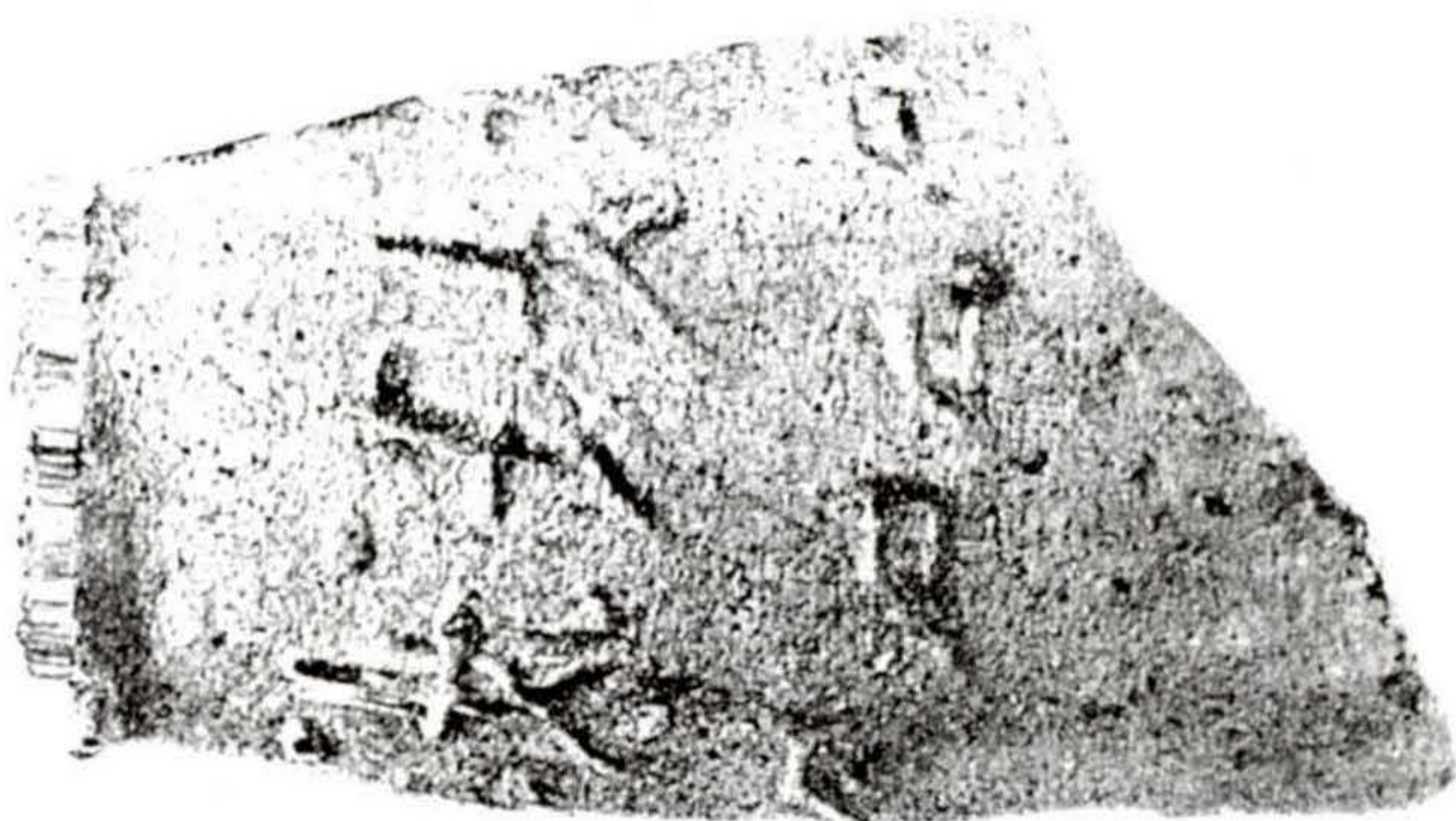
▲ 건물지 전경(남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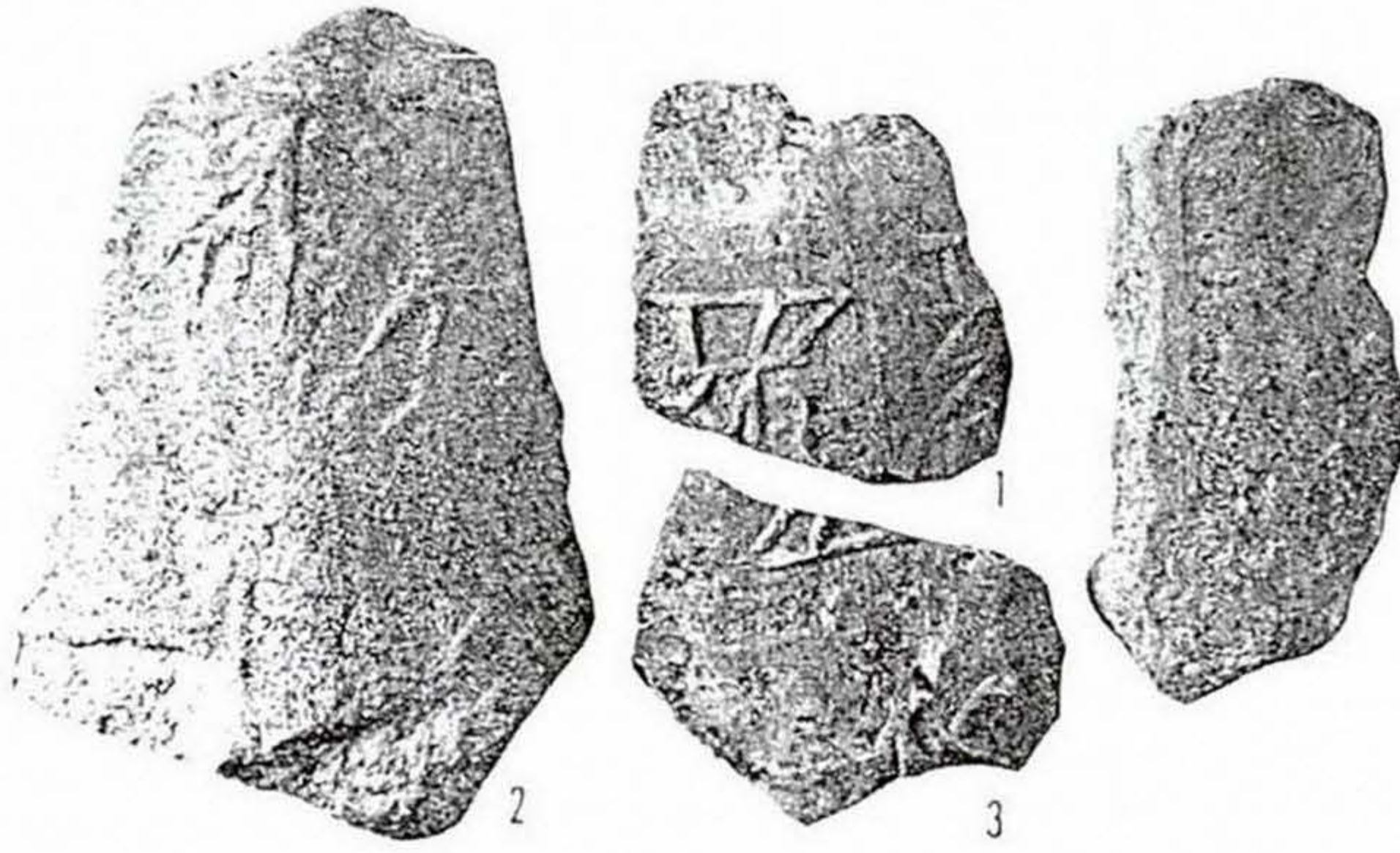
▲ 건물지 전경(독을 제거한 모습)



▲ 석성산성 채집 토기 저부편



▲ 석성산성 채집 기와(B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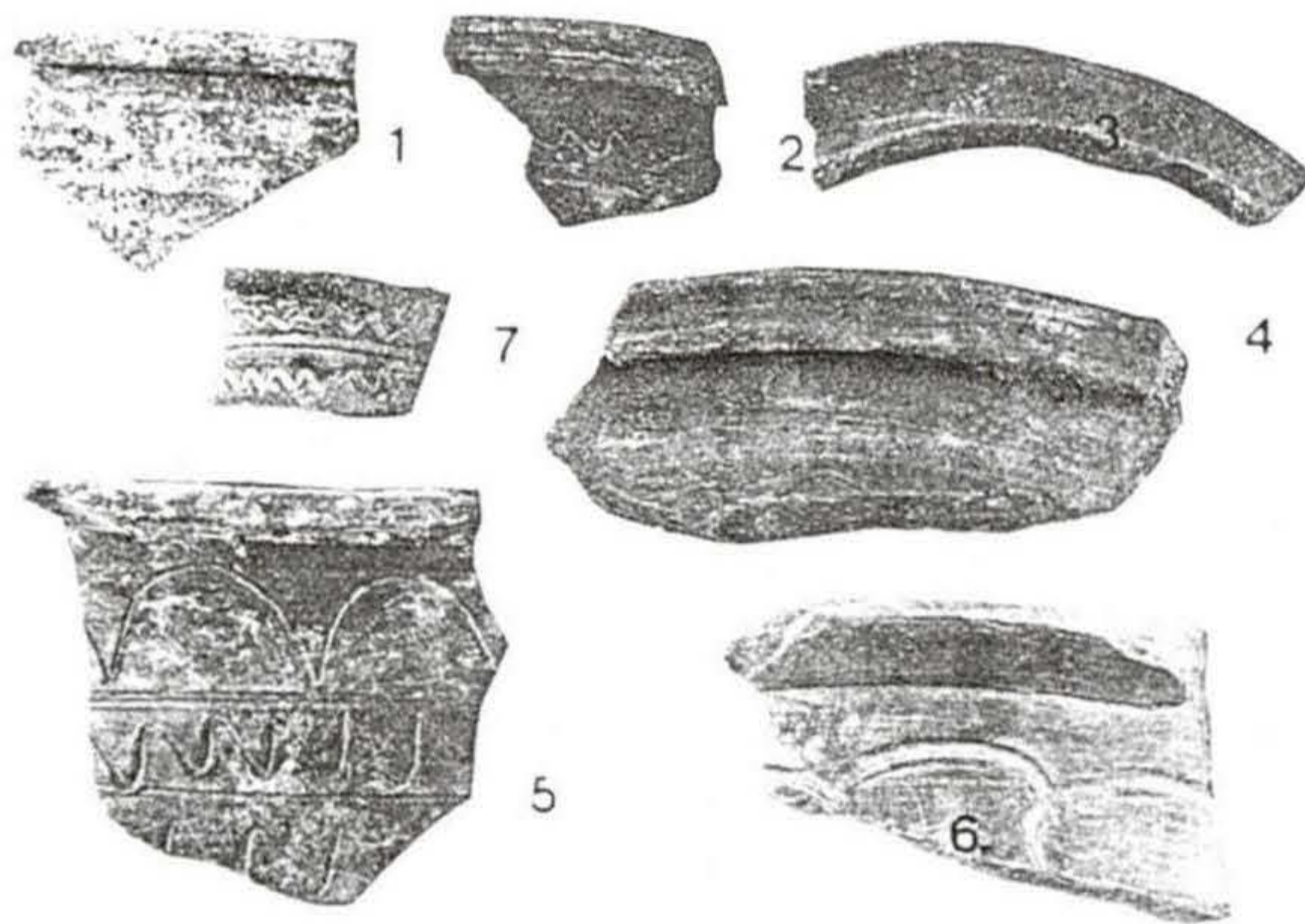
▲ 석성산성 채집 기와편(B지구)



▲ 석성산성 채집 기와(B지구)



▲ 석성산성에서 채집된 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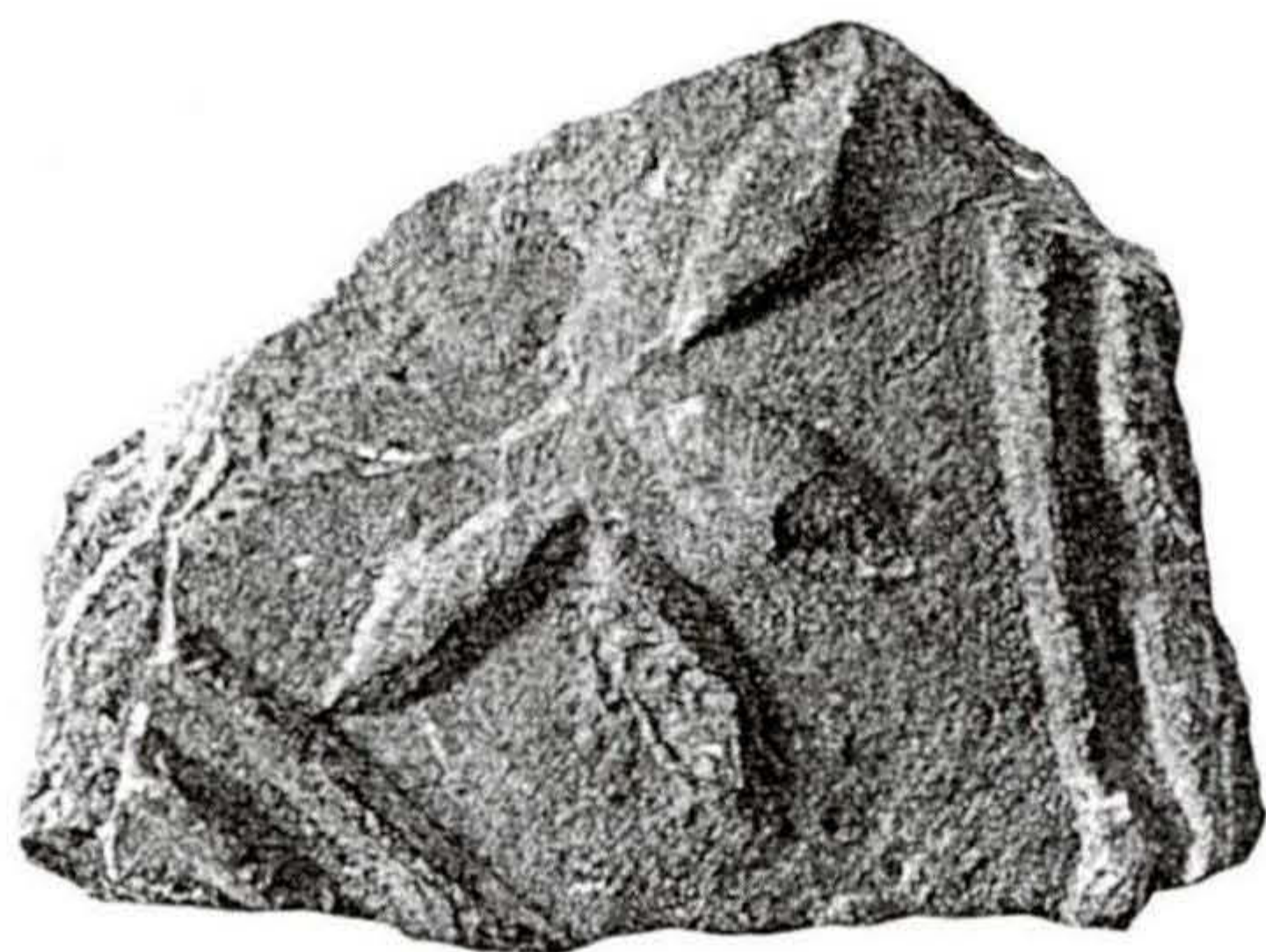
▲ 석성산성 채집 토기 구연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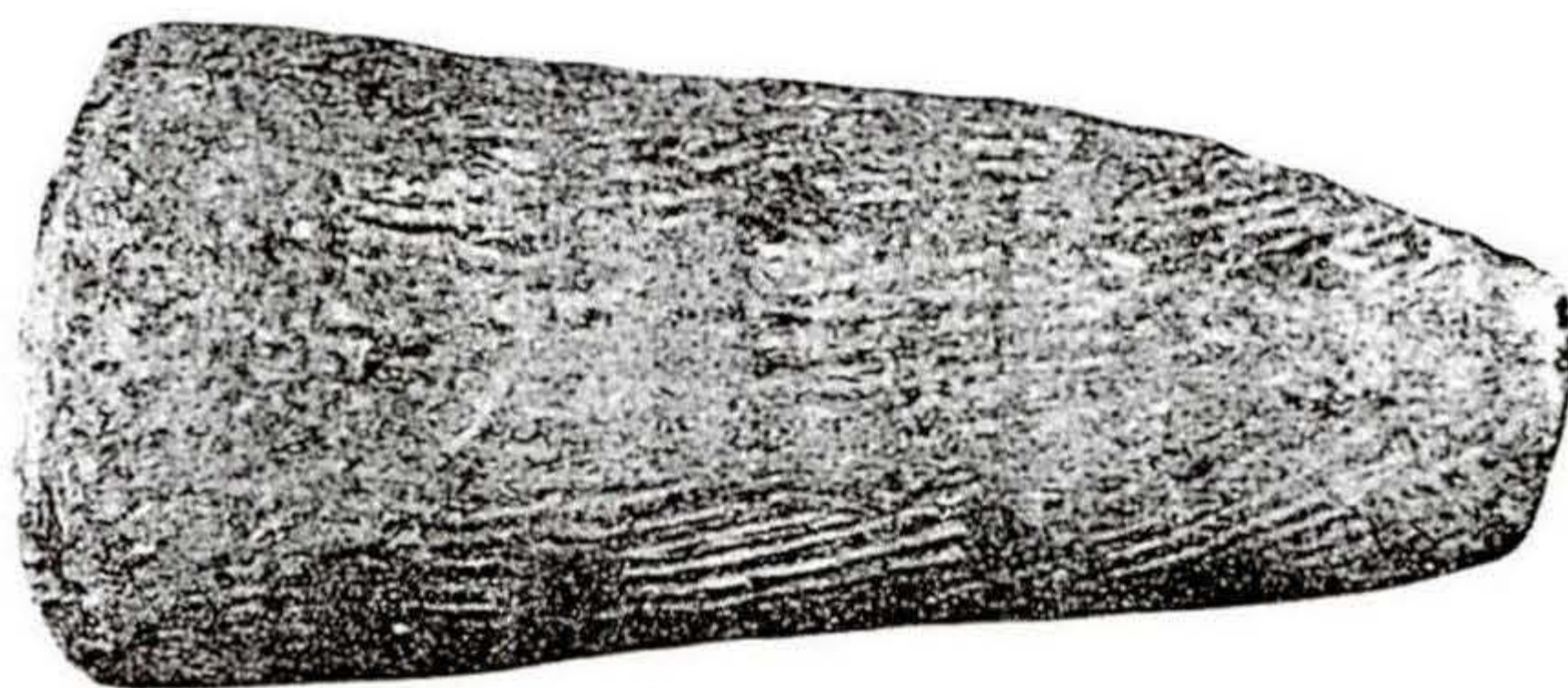
▲ 석성산성 채집 기와(B지구)



▲ 석성산성 채집 기와(B지구)



▲ 석성산성 채집 연화문 와당편



▲ 석성산성 채집 수키와(B지구)

2. 전 설

1) 상여바위

우리고장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 양성중학교 뒷산에는 둘레가 4km쯤 되는 옛날 성터가 있다. 이 성은 백제가 망한 후에 3년여동안 부흥운동을 일으킨 본거지로서, 주류성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성이 있는 석성산 정상 부근에는 큼지막한 바위 하나가 우뚝 솟아 있는데, 이 바위가 바로 상여바위이다. 이곳 사람들은 이 상여바위에 얽힌 이야기야말로 이 산성이 주류성임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믿고 있다.

이 상여바위에 얽힌 이야기는 대략 다음과 같다.

아주 옛날에는 이 상여바위에서 상여소리가 가끔씩 들려왔다고 한다. 특히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은 날씨에는 이 석성산 정상의 상여바위 부근에서 상여나가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구성지게 들려왔다는 것이다. 더러는 나라에 전란이나 큰 변고가 있을 때에도 들려왔다고 한다.

옛날 노인들은 꿈속에서도 이 상여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성터 아랫마을에 살던 옛날 노인들은 잠을 자다가 자주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한다. 옛날 군인 복장을 한 남자들이 상여를 메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흰옷을 입은 남자들이 산꼭대기에서 분주하게 뛰어 다니는 모습을 꿈속에서 보았다는 것이다.

대략 이러한 연유들로 인해서 산꼭대기에 있는 바위를 상여바위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상의 상여바위 얘기들과 관련하여 이곳 주민 김갑현씨(전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조사위원)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했다.

백제의 유민들이 이곳 주류성을 중심으로 부흥운동을 전개할 당시에는 그 세력이 아주 막강했었음이 여러 가지 고증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그렇게 막강했던 세력이 백제 재건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3년여만에 패망하게 된 연유는 부흥군 지도부의 어이없는 반목과 분열 때문이었다.

백제 부흥운동의 실패와 함께 부흥군에 속했던 숭한 군사들은 목숨을 잃기도 했을 것이고, 이곳저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을 것이다. 죽은자의 원혼과 산자의 한스런 마음이 오랜 세월동안 전해전해 내려오면서 주류성 꼭대기

의 상여바위라는 구체물을 통해 전설로 굳어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배동순씨(전 향토문화연구회장)는 상여바위 이야기와 관련하여 색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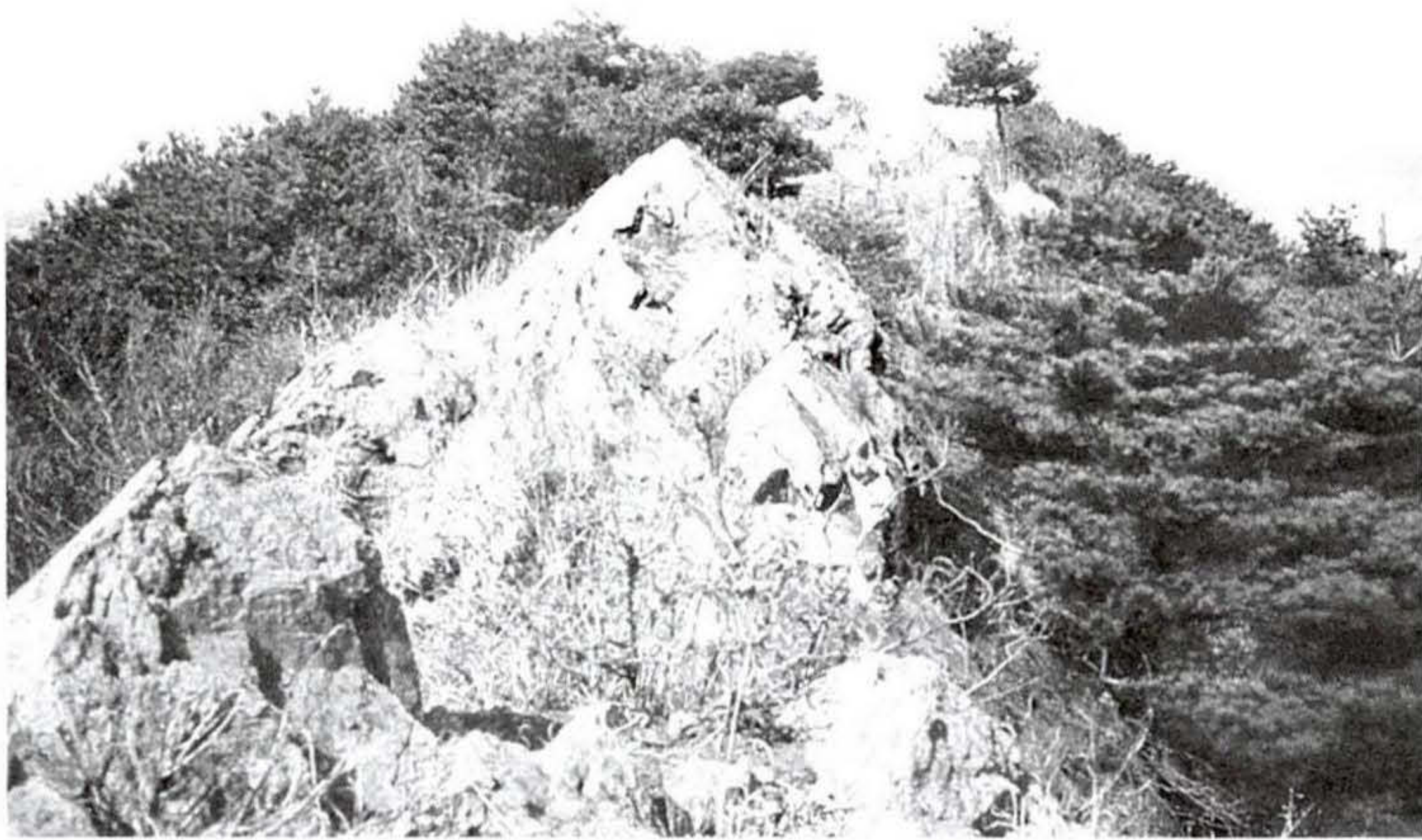
3년여 동안의 활발했던 백제 부흥운동이 막을 내린 것은 주류성 전투에서였다. 이 주류성 전투에서 수많은 백제 부흥군이 목숨을 잃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곳 주류성에서 백제 부흥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원통하게 죽어간 영혼들의 넋을 위로해 주는 행사를 벌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근 부여군 은산면의 은산별신제같은 행사가 전국적인 행사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계기도 상여바위 전설과 비슷한 연유에서였다는 것이다. 백제를 지키다 죽어간 수많은 백제 군인들의 영혼을 위로해주기 위한 진혼제에서 은산별신제가 시작되었듯이, 우리 홍성군에서도 그런 행사를 홍성군민 모두의 행사로 확대 승화시키면서, 이곳이 주류성이라는 확실한 분위기 조성을 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주류성이 이곳인지는 아직 학계의 확실한 정답이 나와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이곳이 주류성이라는 개연성은 아주 많다.

상명여대 조사팀이 이곳 성터의 지표조사를 한 결과, 성 중턱에서 스물일곱 칸짜리 집터를 발굴해냄으로써 그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고 한다. 이 집터는 그 당시로는 상당히 큰 규모일 뿐만 아니라, 기와 조각에 새겨진 글씨 등으로 보아 당시 부흥군의 지도자가 거주했던 집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가파른 산길을 따라 성터의 정상에 올라가 보면 이곳이 당시에 군사적으로 천연의 요새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쉽게 느낄 수 있다. 동서남북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산 정상의 상여바위에 올라앉아 있으면 귓전을 때리는 세찬 바람소리를 타고 어디선가 딸랑딸랑 구성진 상여소리가 들려오는 듯도 하다.



▲ 상여 바위

2) 쇠질 바위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오서산 중턱부근에 내원사라고 부르는 오래된 암자가 하나 있다. 이 암자는 백제 의자왕 때에 법명(法名) 대사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한다.

이 내원사는 백제가 멸망하고 3년여동안 부흥운동을 벌였다는 주류성과도 아주 가까운 위치에 인접해 있다. 속설에 의하면 백제 부흥운동의 지도자였던 풍왕이, 백제 부흥운동의 성공을 위해 수시로 찾아와 기도를 드리던 절이었다고도 한다.

또한 이 내원사와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20여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쇠질 바위라고 하는 큰 바위가 있다. 이 바위는 밑에서 올려다보면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이듬처럼 쇠질은 될 정도로 높고 웅장하다.

이 쇠질바위를 울창한 숲이 사방에서 둘러싸고 있는데, 바위 한쪽에는 교실 반칸 정도 넓이의 굴이 뚫려 있다. 어른들이 20여명은 충분히 들어앉을 수 있는 제법 큰 석굴이다. 이 석굴은 오래전부터 주로 무속인들이 찾아와서 기도를 하는 곳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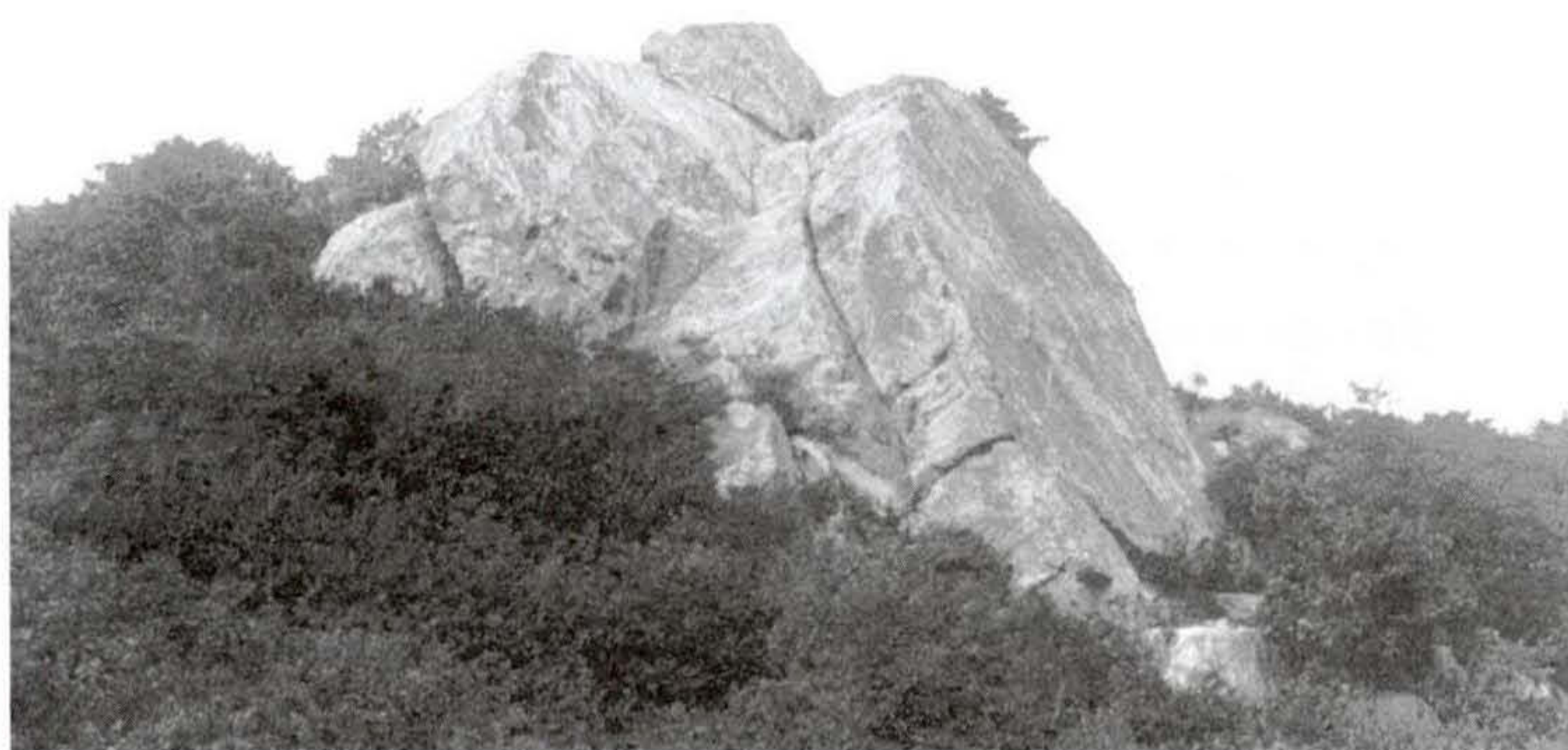
그런데 이 석굴이 요즘에 우리지방 향토문화를 연구하는 사학가들에게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흥미롭다. 우리 지방의 향토사학가들이 쇠질 바위 밑에 뚫려있는 이 석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백제 부흥운동의 지도자였던 풍왕은 적군과 간신들의 모함에 속아 부흥군의 용맹스런 장수였던 복신 장군을 살해하였다. 그 결과로 부흥군은 심각한 내분에 휩싸여 힘을 잃고, 3년여동안의 피나는 고생을 허사로 돌려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풍왕이 복신장군을 살해한 장소가 바로 석굴 속이었다는 것이다.

풍왕이 복신장군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있을 때에, 복신장군은 그가 거처하는 석굴 속에서 몸이 불편하여 누워있었다고 한다. 이에 풍왕은 직접 복신장군을 문병한다는 핑계를 대고 찾아가서 그를 살해하였다고 한다. 우리지방 향토 사학가들은 그동안 풍왕이 복신장군을 살해했다는 굴을 찾아내는데에 상당히 많은 힘을 기울여왔었다. 이런 중에 쇠질바위 밑에 뚫려있는 석굴이 밖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 석굴이 지리적으로 주류성과 인접해있을 뿐만 아니라, 부흥운동의 지도자들이 자주 찾아왔을 내원사와도 가까운 거리여서 그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신장군이 이 석굴에서 기거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 쉼질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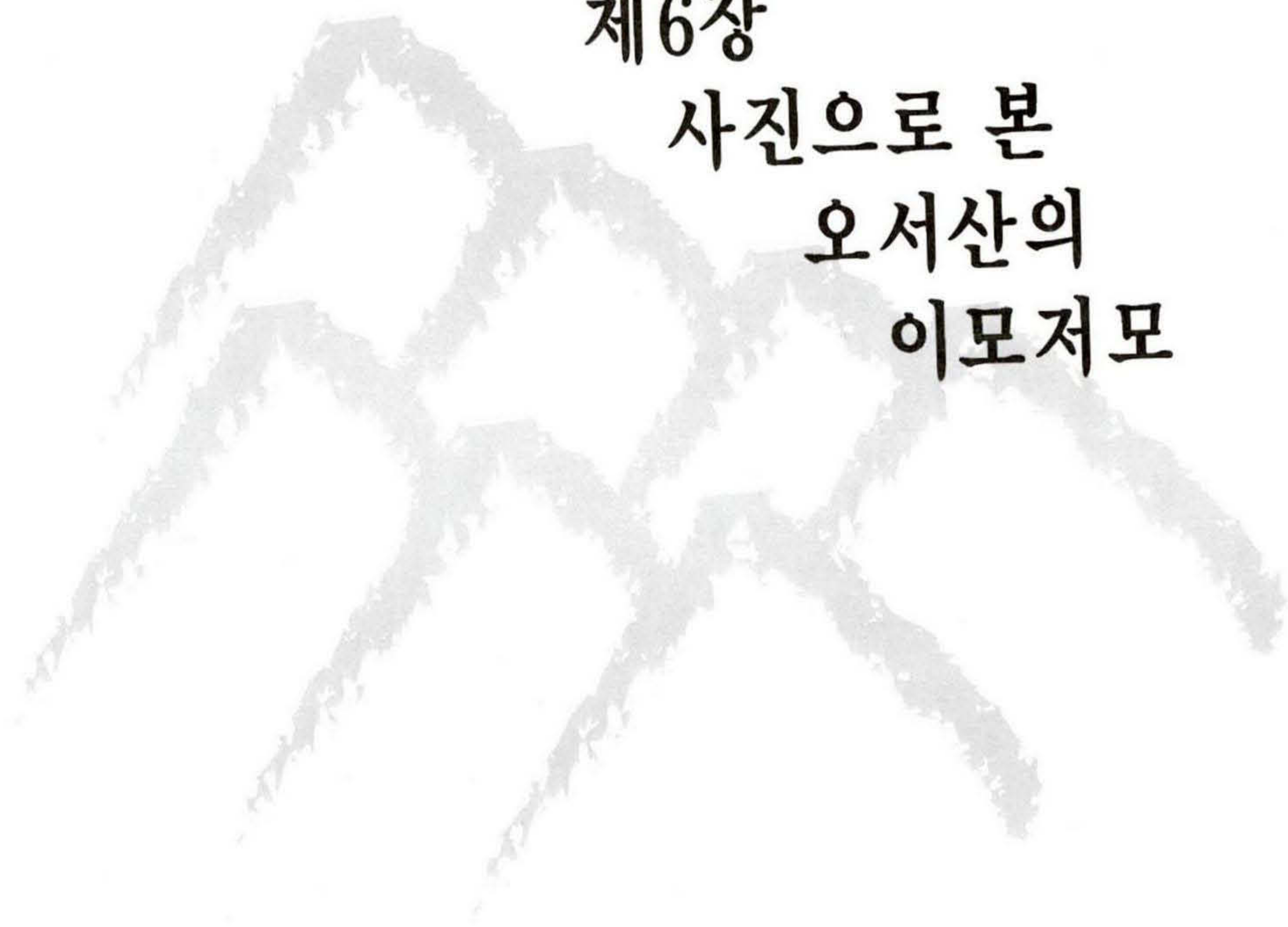
▲ 복신굴

제6장

사진으로 본

오서산의

이모저모



제6장 사진으로 본 오서산의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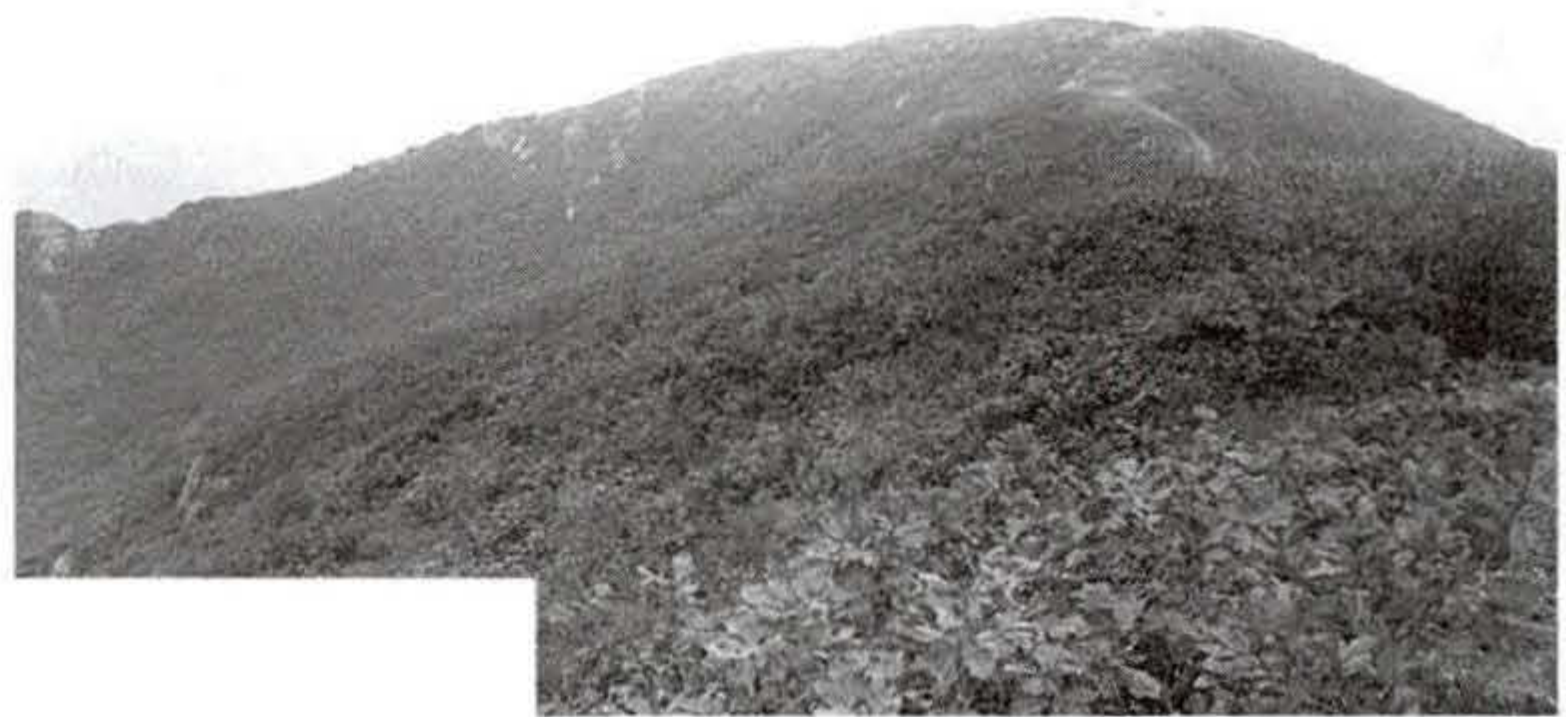
1. 오서산 정상의 억새





2. 오서산 정상의 모습들







3. 오서산 광성리 청정 계곡



* 참고문헌

- 구재기·김정현 「홍성의 전설과 효열」 홍성문화원, 1995
최운식·김정현 「홍성의 마을 공동체 신앙」 홍성문화원, 1999
홍성군지 편찬위원회 「홍성대관」 홍성군, 2002

김정현 약력

- 충남 홍성 출생, 홍성 고등학교 졸업
- 공주교육대학교 졸업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졸업, 교육학 박사
- 동화작가
- 충남문학 유공상, 아동문예작가상 수상
- 한국문화에 술진흥원 장상 수상
- 충남문학대 상수상
- 청하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홍성 군지부장
- 현재 광동초등학교 근무

오서산 주변의 민속

· 인 쇄 : 2002. 12

· 발 행 : 2002. 12

· 저 자 : 김 정 현

· 발행인 : 이 하 영

· 발행처 :  **홍성문화원**

350-807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12-13

Tel. 041) 632-3613, 634-6959

Fax. 041) 632-1199

· 인쇄처 : 조 양 인 쇄 사

 041) 632-2363

이 책은 도비·군비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 오서산 전경

